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스 내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49호

Thursday, December 18 2025 A

## ‘국내선 항공편’도 향후 추방 대상자 단속

탑승객 명단 ICE에 전달  
발견되면 공항 출동 체포  
검거율 75%로 높은 수준

국내선 항공 이용객까지 추방자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항공 기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자가 필요 없는 국내선까지 단속이 확대되면서 여행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 명단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CE는 이를 추방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공항에서 체포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TSA와 ICE 간 협업 내용을 담은 내부 문서를 입수해 이러한 단속이 비공개로 시행돼 왔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A는 주 2~3회 항공편 이용 예정자 명단을 ICE에 전달하고 있으며, ICE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인물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공항에 요원을 파견한다. 전직 ICE 고위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식별된 사례의 약 75%가 실제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기조가 국내선 항공편까지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ICE는 국내선 직접 개입을 자제해 왔다. 공항 단속이 보안 검색과 여객 흐름에 부담을 주고, 항공기 대기 시



연말연시를 맞아 델리스 국제 공항이 연일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간 증가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TSA 역시 국내 범죄나 이민 단속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업으로 공항은 사실상 추방 집행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체포 사례도 확인됐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텍사스로 이동하려던 19세 대학생이 탑승 수속 과정에서 체포돼 현장에서 구금된 뒤 온두라스로 추방됐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DHS) 차관보는 “불법 체류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비행기를 타야 할 이유는 자진 출국을 위해서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비자 입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자에게 내년 2월부터 과거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가족의 출신지 등 가족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강한길 기자

##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실상 종료

### 하원 공화 “연장안 제외”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의 ACA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공화) 하원의장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17일(오늘) 표결 예정인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에 ACA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졌다.

ACA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중산층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자체도 약 20%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신 협회형 보험 확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법안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일부는 보험료 급등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며 지도부에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공조해 ‘청원서(discharge petition)’ 방식으로 보조금 연장안을 강제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마이크 룰리(뉴욕 17지구)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찬반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자제 행위”라며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경우 내년 연간 건강보험료가 최대 2만26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2만5000달러 수준의 단독 가구 역시 연평균 약 1000달러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준 기자

## ‘셧다운 한파’ … 11월 실업률 4년래 최고

10월 일자리 10만5000건 ↓

### 연방공무원 줄퇴직 영향

10~11월에 걸쳐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0만5000건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5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을 반영한 지표로, 당시 퇴직자는 대부분 9월 말에 정부 급여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정부 고용은 10월 16만2000명 급감했으며, 11월에는 추가로 6000명 줄었다. 함께 발표된 11월 지표의 경우엔 일자리가 6만4000건 소폭 증가했으나, 4

월 이후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적됐다.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치(4만 5000건)보다는 상회했다.

11월 실업률은 4.6%로, 채용 속도가둔화했음을 드러냈다. 이 수치는 2021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23년 4월 54년 만에 최저치인 3.4%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

다면, 이 실업률 수준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실업률 증가세는 전직 연방 공무원들의 일자리 찾기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며 “아마도 퇴직금을 수령한 뒤 노동시장에 남아 구직 활동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들은 실업자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 “교통사고는 왓츠 & 박”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히스패닉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w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줄지 않는 LA의 성매매는 뉴섬 탓”

공화당 후보, SB 357 폐지 공약  
거리 배회 매춘 여성 체포 못해  
정책적 모순, 실효성 논란 제기

내년 가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예비후보 스티브 힐던이 성매매 목적의 길거리 배회를 비범죄화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매춘의 거리’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를 비롯해 사우스 LA 피게로아 스트리트 등 성매매 여성들이 상시 배회하는 지역이 실제로 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타임스는 힐던이 15일 성매매 여성을 자주 배회하는 사우스 LA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77가 교차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제정된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법(SB 357)’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은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성매매 의도를 갖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을 체포



매춘 방지를 위해 LA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의 일부 구간에 설치된 우회전 금지 사인(왼쪽). 성매매로 유명한 피게로아 스트리트의 풍경.

한인타운 내 웨스턴 애비뉴 역시 수년간 성매매 배회 문제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이어져 온 지역이다. LA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웨스턴 애비뉴 양방향에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우회전 금지’ 표지판 26개를 설치하며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우회전이 금지된 도로임에도 반대편에서는 좌회전 진입이 가능하고, 매춘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줄지 않는 등 정책적 모순이 지적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일부 법 집행 기관과 경찰 노조는 SB 357이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월 피게로아 지역을 다룬 보도에서, 경찰이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린 미성년자를 구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LA경찰노조(LAPPL)는 15일 성명을 통해 SB 357을 “인신매매법과 포주의 꿈의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법률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경준 기자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힐던은 “우리 아이들이 이 거리에서 팔리고 있다”며 “민주당 주정부의 정책이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사실상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 극복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12일 밤 현장을 둘러보던 중, 8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손님에게 넘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피게로아 스트리트 일대는 ‘더 블레이드(The Blade)’로 불리며 LA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매매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의 여성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오가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

지난 8월에는 연방 검찰이 이 일대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통제한 갱단원과 공범 11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

## 구직난으로 대학 찾는 성인 급증

칼리지 등록률 두 자릿수 증가  
경쟁력 강화 위해 자격증 취득

최근 가주에서 학위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에 등록하는 성인 학습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구직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LA와 새크라멘토 지역의 커뮤니티 칼리지 10곳 총장단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내년도 교육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등록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매터스는 가주 전역 116개 커뮤니티 칼리지 가운데 다수 대학에서 등록생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실제 LA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트(LACCD)의 경우 올해 35~54세 등록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28% 급증했다.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4개 캠퍼스를 운영하는 로스리오스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트 역시 올가을 학기 등록률이 지난해 가을 학기보다 5% 이상 늘었다.

특히 로스리오스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트에서는 직업 기술 교육 과정 등록생이 10% 증가해 신입생만 4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괄총장실(CCCCO)은 최근의 일자리 부족 현상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김형재 기자

## VA 페어팩스카운티 싱글하우스 가격 하락

타운하우스·콘도 소형주택은 상승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싱글하우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마켓스테츠 바이 쇼잉 타임(MarketStats by ShowingTime)이 발표한 11월 주택판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싱글하우스 평균 판매가격은 113만8036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 하락했다.

반면 타운하우스와 콘도 등 소형 주택 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타운하우스 평균 판매가격은 58만5345달러로 9% 상승했으며, 콘도 역시 47만179달러로 7% 올랐다.

이 같은 소형 주택의 호조에 힘입어 카운티 전체 평균 주택 판매가격은 88만2408달러로 4.4% 상승했다.

그러나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11월 페어팩스 카운티의 주택 판매



건수는 787채로 전년 동월 대비 8.2% 줄었으며, 워싱턴 지역 전체 판매량도 3355채로 6.4%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량 역시 전년 대비 0.8% 감소한 4만5476채에 그쳤다.

가격 측면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지역의 중간 주택 판매가격은 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상승했다.

브라이트 MLS의 리사 스튜어트번트 선임연구원은 “연말까지 이어진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시장 참

여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이트 MLS는 내년에는 모기지 금리 하락과 함께 리스팅 물량이 늘어나며, 소폭의 가격 조정 국면 속에서 바이어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의 주택 판매 가격은 리스팅 가격 대비 97.4% 수준으로, 1년 전의 98.3%에 비해 소폭 하락해 셀러 협상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팅 주택 공급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304채를 기록했다.

11월 기준 스웨어피트당 평균 판매 가격은 366달러로 0.3% 하락했으며, 페어팩스 카운티는 북버지니아 지역 가운데 중간 수준의 가격 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 DC가 501달러로 가장 높았고, 알링턴 카운티 498달러, 폴스치치 489달러, 알렉산드리아 시티 468달러 순이었다. 김윤미 기자



**J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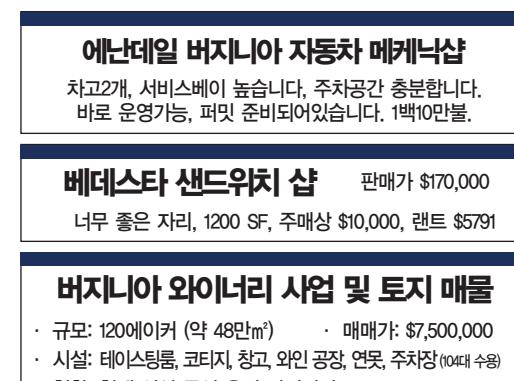
REALTY 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  
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저희는 뉴욕 코리니 부동산 Koriny New York 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미국 16개 주요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민·역이민 관련 세금 컨설팅, 주택 구입 및 투자 절차 지원,  
그리고 기업의 초기 정착(랜드링) 서비스 등  
부동산 전 영역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과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부동산·투자 세미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0월에는 워싱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더불어, 한국 NH금융,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코리니 부동산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잇는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며,  
최고의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면세처 리스팅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내  
집  
장  
만

내  
집  
장  
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 불로바(11선거구)·프랭클린(23선거구) 각각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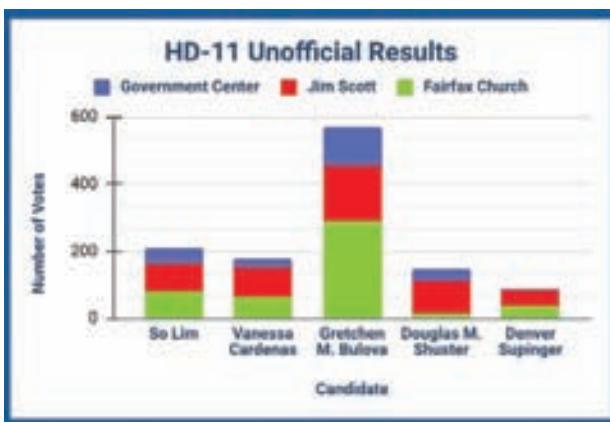
북버지아 민주당 예비선거  
한인 유일 임소정 후보 석패

버지니아 주하원의원 제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한인 임소정 후보가 석패했다.

16일 페어팩스 시 민주당 위원회가 발표한 '순위선택투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데이비드 불로바 전 하원의원 부인 그레첸 M. 불로바 후보는 567표로 47.73%를 확보해 내년 특별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불로바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임소정 후보는 209표로 17.59%를 얻었고, 178표로 14.98%를 획득한 바네사 카르데나스 후보는 3위에 그쳤고, 그 뒤를 더글러스 M. 슈터, 덴버 수핑거 후보가 이었다.

제11선거구는 데이비드 불로바 전 하원의원이 애비게일 스펜서 주지사 당선인의 지명을 받아 버지니아주 차기 현연자원 및 역사자원부 장관이 되기 위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되었다.



이번에 승리를 거둔 그레첸 불로바 민주당 후보는 2026년 1월 13일 실시 예정인 특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되는데, 현재 공화당 후보로는 지난 달 출마해 데이비드 불로바에게 고배를 마셨던 애덤 와이즈가 유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스탠폴드 카운티 일부를 관할하는 제23선거구 예비선거에서는 마

가렛 플랭클린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내년 1월 특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최종 한판 승부를 벌인다.

공화당 후보로는 벤델 로빈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의회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63대 37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버지니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내년 1월도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성한 기자

## 강경화 대사, 트럼프에 신임장... 제정트럼프, 李대통령 안부 물어

강경화 주미대사가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과 환담하고 신임장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 대사와의 환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 제정을 먼저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10월 2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도 참석했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4개국 대사들이 신임장을 제정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자신을 파견하는 국가의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공식 전달하는 행사다. 이를 거쳐야만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0월 4일 부임한 강 대사는 이번 제정식 이전에 미국 측의 배려로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공식 전달하는 행사다. 이를 거쳐야만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0월 4일 부임한 강 대사는 이번 제정식 이전에 미국 측의 배려로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공식 전달하는 행사다. 이를 거쳐야만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0월 4일 부임한 강 대사는 이번 제정식 이전에 미국 측의 배려로



## CBP, 델레스 국제공항서 미신고 19만달러 압수

연방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워싱턴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여행객 8개 그룹으로부터 신고되지 않은 현금 약 19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CBP는 이번 압수 조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17일 사이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규모의 압수 사례는 10월 27일 발생했는데, 델레스에서 가나로 향하던 여행객 두 명이 구두와 서면으로 9000달러가 조금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CBP 직원들이 기내 반입 가방을 조사하던 중 신고되지 않은 현금이 담긴 봉투 네 개를 발견했는데, 봉투에는 총 4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CBP는 여행객들이 원하는 금액의 현금을 소지할 수 있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연방 재무부에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돈이 압수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외화 밀수에 연루될 경우 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 17일 버지니아 레스턴서 총격

### 경찰, 용의자 추적 중

17일 버지니아 레스턴 남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페어팩스 경찰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이날 오전 11시 49분경 12300 펜 셀 코트에서 일어났는데 911 신고자가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이 "엉망진창"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누군가가 총을 쏘고 있었다면서 "총성이 여섯 발 들렸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지 못했다고"고 말했다.

당시 집 안 윗층에는 성인 두 명과 갓 난아기 한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성인 남성 한 명을 발견했는데, 이미 숨져 있었다.

총격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경위와 용의자의 신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에는 특수작전팀, 페어팩스 1지구 경찰, 드론 부대, 경찰견 부대, 실시간 범죄센터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 광고·구독 문의

Tel. 703-281-9660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한 해 동안 배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미국가조찬기도회(회장 정승욱·이사장 서옥자) 임원진들은 지난 16일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담임목사 김재이)에서 연말 모임을 갖고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올 한 해의 활동을 되새기며 감사와 나눔의 시간을 나누고, 새해를 향한 기도와 격려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김윤미 기자



WWW.UMNLOAN.COM

##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30096

# 1만3000불 수도·전기료 폭탄 날벼락

고지서 수년간 잘못 배달  
확인되자 한꺼번에 부과  
과다청구 논란 일자 탕감

LA수도전력국(LADWP) 측의 주소 오류로 1만 달러가 넘는 수도·전기 요금 고지서(사진)가 발급돼 과다 청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FOX11 보도에 따르면 뱀나이스 거주자 월 벤트레스는 올해 초 1만 3000달러가 넘는 고지서를 받고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청구서는 실제였고, 그가 2020년 이사 당시 이미 주소 변경을 통보했음에도 고지서가 수년간 다른 주소로 발송되면서 거액 요금 통지서 사태가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벤트레스는 "LADWP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업무 차질 때문에 바로잡기 어렵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신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납부 유예가 적용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는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카운트 번호도 알지 못해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거액의 청구서를 받은 뒤 그는 수시간 동안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결국 한 고객 서비스 매니저와 연결돼 2500달러 감액을 약속받았고, 본인 부담금 3000달러를 납부한

뒤 나머지는 분할 납부에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 고지서에서 잔액은 오히려 약 1만7000달러로 늘어 있었다. 벤트레스는 "2022년부터 해당 주택 수도 계량기 검침을 안한 뒷에 사용량을 추정해 추가 요금을 부과한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자신의 사연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그는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이 잇따르면서 집단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의에 LADWP는 해당 사례가 "특이한 경우"라며 검토 끝에 청구액을 대폭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LADWP는 요금 청구 문제를 겪는 고객은 공식 웹사이트(<https://www.ladwp.com/support>)를 통해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 한인 일가족 살해 태권도 관장 종신형

### 호주 대법 "극악무도한 범행"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한인 태권도장 관장 유광경(51)씨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6일 ABC뉴스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의 이언 해리슨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범행은 매우 극악무도했다"며 "응보와 처벌, 사회 보호, 범죄 억제 차원에서의 공익은 종신형 외에는 달리 충족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로 피해 가족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질투를 지목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라이언스 태권도장'에서 7세 제자와 그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피해자 자택으로 이동해 아버지까지 흉기로 살해했다. 유씨는 범행 이후 몸싸움 중 다친 상태로 병원을 찾아 "마트

주차장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나 병원에서 체포됐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세 건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인간적 연민의 흔적 없이 자행된 잔혹하고 무의 미한 폭력"이라며 선처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한길 기자

LA 산불 피해 보조금 종료  
총 지원 규모 2340만불

LA 카운티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LA 카운티 경제기획국(DEO)은 지난 1월 산불 피해 지역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LA 지역 소상공인·근로자 구호기금'의 지원금 배분을 모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DEO에 따르면 이번 구호기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2181곳에 총 1770만 달러, 근로자 2892명에게 570만 달러가 각각 지급됐다. 총 지원 규모는 2340만 달러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1곳당 최대 2만5000 달러, 근로자에게는 1인당 2000달러가 지급됐다. 이번 구호기금은 지난 1월 이튼 및 팰리세이즈 산불 발생 지역에서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당시 산불로 오프라인 사업장 1907곳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약 3만9000개 사업체와 23만 명의 근로자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송윤서 기자

## 음주운전 40대 한인 남성 타투 업소 들이받아 체포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한인 남성이 차량으로 타투 업소를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로 업소 벽이 완전히 파손되면서 피해 업소는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위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국(APD)에 따르면 존 김(47)씨가 지난 7일 오후 9시 40분쯤 오스틴 동부 페더널레스 스트리트와 이스트 7번가 인근에 위치한 타투숍 '스튜디오 잉크(Studio Ink)'로 차량을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접한 도미노피자 매장 정문 일부도 함께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업소 전면 벽이 파손됐으며,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트래비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

## 브레아,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단속

### 무작위 불시 점검 나서 적발 시 벌금 50불부터

브레아 시가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 위반 단속에 나섰다.

ABC방송에 따르면 시 당국은 지난 주소지의 주거용, 상업용 쓰레기 수거 현황을 매년 모니터링해 배출된 쓰레기의 오염 여부를 관찰·기록할 것을 시에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에는 시 직원이 누군가의 쓰레기통을 점검하는 모습이 담겼다. 시는 "가주법(SB 1383)에 따라 쓰레기 모니터링이 의무화됐다. 이 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기물 쓰레기통에 각각의 용도에 맞지 않는 폐기물을 잘못 버리는 경우 오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 측이 제시한 오염 사례는 재활용품 용기에 비닐봉지를 넣거나, 일반 쓰레기 용기에



음식물을 버리거나, 유기물 쓰레기 용기에 알루미늄 캔을 버리는 경우 등이다. 시 측은 안전 조끼를 착용한 시 직원 또는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이 쓰레기통을 점검한다며 "이들은 각 쓰레기통에 적합한 폐기물이 담겼는지, 쓰레기통을 어느 정도 채웠는지, 쓰레기 오염 사례 발견 여부 등의 정보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쓰레기를 잘못된 용기에 버린 경우, 시 직원은 해당 용기에 '실수(OOPS!)' 태그를 부착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L E X U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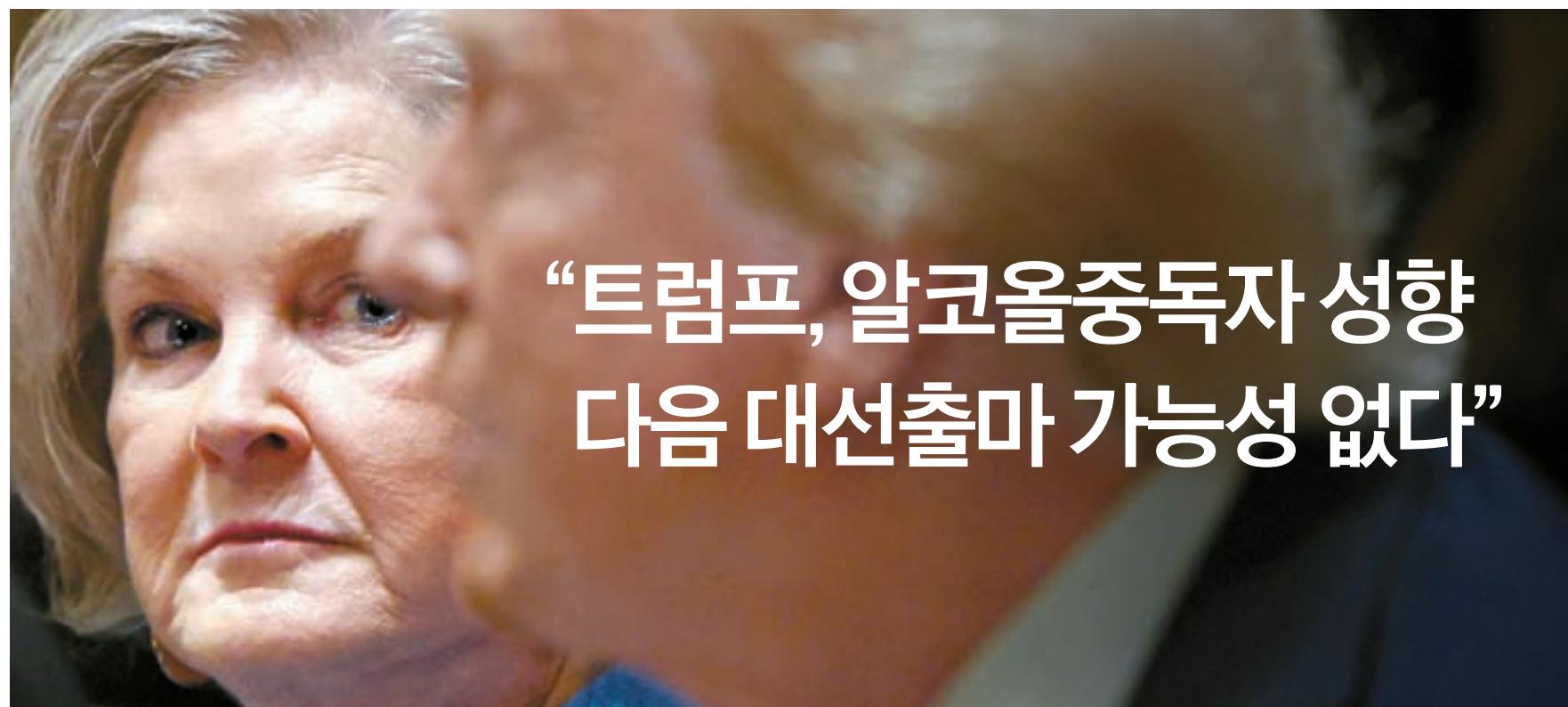
## DECEMBER TO REMEMBER SALES EVENT

1월 5일 종료



드라이브웨이를 반짝이게

Experience Amazing



##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향 다음 대선출마 가능성 없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인터뷰가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와일스 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인터뷰 짧장

“알코올 중독자의 성향(an alcoholic's personality)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한다.”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월간지 배

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

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자

“관세 부과 때 참모들과 엄청난 이견  
트럼프, 정리 안된 생각 그대로 말해”

신의 분신과 같다는 의미에서 ‘수지 트  
럼프’라고 불렸을 만큼 전폭적인 신뢰  
를 표해 온 와일스 비서실장의 이번 인  
터뷰 내용이 미 워싱턴 정가에 큰 파문  
을 일으키고 있다.

배니티페어는 트럼프 2기 출범 직전

부터 최근까지 와일스 실장과 10여 차

례 만나 나눈 대화를 토대로 이날 2쪽  
지의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코올 중독자 성향이 있다면서 “이들  
의 성향은 술을 마실 때 과장된다”고  
했다. 미국프로풋볼(NFL) 스타로 알  
코올 중독을 겪은 팻 서머럴을 부친으  
로 둔 와일스 실장은 “나는 강한 성격  
의 소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  
라고도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  
령은 와일스 실장을 감싸며 신뢰를 재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술을 마  
시지 않지만 만약 마셨다면 알코올 중  
독자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라고 자주  
말해 왔다”며 “나는 매우 소유욕이 강  
한 사람인가 때문”이라고 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강하게 돌아붙인 상호관세 정책을

놓고 참모진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  
었다는 뒷얘기도 공개했다. 와일스 실  
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  
호관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리되  
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에 깝  
다”고 했다. “당시 좋은 생각인지에 대  
해 엄청난 이견이 있었다. 우리는 트럼  
프에게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다”면서 밴스  
부통령과 함께 관세 부과 속도를 늦추  
려 했었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에 대해  
권력 내부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  
는 얘기가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의  
입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트럼프  
는) 가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다시 출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탄  
식하다가는 곧바로 ‘아니야. 할 일은 다  
해냈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때야’라고 한다”며 “그는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서 “과거 10년  
간 음모론자였다”고 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아주 괴짜”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과장이 일자 와일스 실장은 배니티  
페어와의 인터뷰를 “악의적”이라며 강  
하게 비판했다.

김형구 기자

## 현대·기아차, 도난 방지 조치에 5억불

현대·기아차는 차량 도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약 400만 대의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기  
아차는 35개 주 경찰총장(법무장관)이  
진행해온 관련 조사와 소송을 종결하  
기 위해 도난 방지 장비 설치 등을 포함  
한 조치에 합의했다.

앞서 현대차는 차량 절도 급증을 비  
롯해 차량 결함, 서비스센터 운영 문제,  
불법 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적으로 30건에 육  
박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양사는 기존에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차량을  
포함해 해당 차종 소유주들에게 아연  
을 보강한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무  
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현대·기아 차량에는 도난 방지 기  
술인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기본 장착  
할 방침이다.

또 현대·기아는 소비자 보상 및 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주  
정부에 최대 9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  
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은 양사의 추산

치를 인용해,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차량에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설치  
하는 데 드는 비용이 5억 달러를 초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22년 8월 이후 티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절도를 일  
종의 ‘놀이’처럼 조장하는 영상이 확산  
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  
지 않은 현대·기아 차량이 주요 표적이  
됐으며, 절도범들은 해당 기능이 없는  
2021년 11월 이전 생산 차량을 집중적  
으로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

## 직원에 불량 숙소, 한인 농장주 적발

한인 농장주가 농장 직원 30명에게 비  
위생적인 주거 시설을 제공했다 거액  
의 벌금과 함께 임대료 환불 명령을 받  
았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15일 남가주 샌  
마르코스 지역에 있는 ‘럭키 그로어스’  
에 7만627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  
원들이 낸 임대료 17만1400달러에 대  
한 환불 조치도 내렸다.

조사 결과 해당 농장은 곰팡이와 해  
충·설치류 등이 발견됐는데다 구조적 결  
함까지 있는 주거 공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 측은 불법으로 임대료를 청구  
한 데다, 이주 및 계절 농업 노동자 보  
호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근무 조건과 주거 환경 관련 정보  
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샌디에이고 유니언-트리뷴에 따르  
면 해당 농장은 2005년 설립됐으며 브  
라이언 쇠-애그니스 쇠 부부가 운영하  
고 있다.

서류상 브라이언 쇠씨가 최고경영자  
(CEO), 애그니스 쇠씨는 최고재무책  
임자(CFO)로 등재돼 있다.

김경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경!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월자와 끊임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는  
월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L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이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기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 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국조 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총

40m  
300m  
미국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총  
맞으면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 정권을 테러단체로 찍은 트럼프 “마두로, 훔친 석유 내놔”

제재 대상 유조선 출입도 전면 봉쇄  
마두로 정권 자금줄 완전 차단 나서  
트럼프 “경험 못한 충격 받을 것”  
미·베네수엘라 충돌, 카리브해 유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 기간은 “미국으로부터 훔쳐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라고 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액의 72.4%에 달하는 원유 수출을 막아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권은 미국 자산을 훔친 행위와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많은 이유로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며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재제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 있다”며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이 고조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작전에 투입된 미 해군 이오지마함. [연합뉴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몇 달 간 군을 직접 동원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추정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했다. 지난달 29일엔 “베네수엘라의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며 하늘 길을 막고, 이달 15일엔 신종 합성마약인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표면적인 갈등 이유는 미국에 대한 마약 밀수출과 함께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석유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2007년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외국계 석유 회사의 자산을 강제로 수용해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마두로 정권 전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의 핵심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가스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충돌은 카리브해 이웃 국가로 번지고 있다. 멜시로 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 겸 석유 장관은 15일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베네수엘라 석유 절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스스로 베네수엘라에 맞선 미국 제국의 항공모함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

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보급품 보충과 병력 교체 등 물류적 목적을 위해 미군이 향후 몇 주간 (우리나라) 공항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외신들은 베네수엘라가 이를 자국 유조선 나포와 연결지은 것으로 해석했다. 베네수엘라가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절도 공범’으로 규정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관련의혹에 대해 “거짓 선전”이라고 부인 중이다.

쿠바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의 잠재적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 원유가 쿠바 전력망을 지탱하는 핵심 공급원”이라며 “미국의 조치가 이미 석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네수엘라와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솟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오후 9시(한국시간 18일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한해였지만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경제·안보 성과와 계획 등을 방송 골든타임을 활용해 직접 설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태화, 이근평 기자

## 일본 직장인, 올 겨울 1000만원씩 보너스 받는다

(1인당 평균)

상장기업 성과급 첫 100만엔 돌파  
60% “임금 올라서 성과급도 늘려”

일본 상장기업의 올해 겨울 보너스(성과급)가 사상 처음으로 1인당 100만엔(약 953만원)을 돌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5

일 닛케이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겨울 보너스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상장을 중심으로 한 전체 조사 대상 기업 478곳의 올해 1인당 평균 보너스 지급액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102만9808엔(약 983만원)이었다. 1975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엔을 넘어선 것으

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들이 보너스를 확대한 이유는 ‘임금 수준 상승’이 5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실적 호조(42.1%)’가 이었다. 닛케이는 “지난 봄 임금 협상을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 봄, 2년 연속 평균 5% 이상의 임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는 건설이 17.31%,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좋은 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동산·주택 분야가 13.81% 증가해 지금 액에 있어서도 최상위권이었다. 방

위산업과 항공 엔진 사업도 호조를 보이며 조선·중공업 분야도 지난해에 비해 20.31% 상승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공업 기업으로 꼽히는 IHI는 전년 대비 43.92% 증가한 123만8308엔(약 1184만원)으로 사

상 최고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가와사키중공업도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41.57% 늘어난 112만2912엔(약 1073만원)의 보너스를 올해 책정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부품 업종은 보너스 지급액 증가율이 3.28%에 그쳤다. 철강 업종은 주요 업종 중 유일하게 3.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영 기자

## 시드니 종기난사범, 인도 출신 이민자

### 15명 살해 등 혐의 기소

15명의 희생자를 낸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종기 난사 사건의 범인 부자(父子) 중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온 인도 출신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살아남은 종격법인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을 살인·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17일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경찰은 성명

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지드 아크람(50)이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 출신의 인도 시민이라고 밝혔다.

사지드는 무역학 학위를 따고 유럽계 여성과 결혼한 뒤 1998년 일자리를 찾았던 아호주로 이민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도에는 그의 친척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사지드는 지난 27년 동안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가족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호주 이민 후 주로 부동산 문제

나 연로한 부모님 방문 등 가족 관련 이유로 여섯 차례 인도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사지드는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인도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지드가 인도에서 사는 동안 그에 대해 불리한 기록이 없었다면서 “사지드나 공범인 아들 나비드가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인도나 텔랑가나 지역의 어떤 영향력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비드는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시민권자다. 사지드는 지난 14일 저녁 호주 남동부 시드니의 유명 해변 본다이 비치의 유대인 명절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나비드와 함께 총격을 가해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뒤 경찰에 사살됐다.

호주 정부는 사건 현장에 세워진 사지드·나비드 부자의 차량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깃발 2개를 발견했다. 당국은 이들이 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나비드는 범행 당시 경찰과 총격전에서 부상해 훈수상태에 빠졌다가 전날 밤 의식을 되찾았다. 이에 따라 시드

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경찰은 이날 나비드를 조사하고 살인 15건, 살인미수·상해 40건, 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초기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호주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IS의 영향을 받은 테러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지드 부자가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사회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사망·종상·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나비드는 오는 22일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 김민지 변호사

###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현법·인권 침해 변호

###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 VA·MD·DC 면허

- 대법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점모종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mailto: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 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Dr. Hyung-hoon Lee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崴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mailto: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mailto:lovespineclinic@gmail.com)

# 40 years Celebrating Since 1982

# H MART

# OUR LOWEST PRICE!

DEC. 18<sup>TH</sup> - DEC. 25<sup>TH</sup>, 2025



## Hello Kitty Rice Steamer

코토 X UNCANNY

헬로키티

유리뚜껑 밥솥

3 CUPS/EA

LIMIT 2 REG. \$39.99

**\$29.99**



KOREA'S No.1 STEAMED BUN  
상립호빵



정통단팥 Sweet red beans

25.39 OZ(8 EA/PKG)

LIMIT 2

REG. \$8.99

**\$5.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I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OTT CITY, MD 21043

# 한학자는 양승조, 며느리는 김종인

통일교, 정치권 문어발식 접촉 시도  
한, 대선 출마 양승조 2021년 독대  
측근에 “통일교 도운 양승조 도우라”  
며느리, 김종인 만나 해저터널 논의  
양 “지역 행사 만남” 김 “기억 안나”

통일교가 20대 대선 1년여를 앞둔 시점에 여야와 체급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문어발식 접촉을 시도한 경황이 17일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통일교 1~5지구별 특별보고문건과 녹음파일에서다. 이 사건에는 2021년 5월 통일교의 각 권역별 지구장들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양승조 당시 충남도지사의 2021년 5월 독대 사진(왼쪽)과 한 총재의 며느리인 문연아 천주평화연합 한국의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는 사진이 같은 달 진행된 통일교 지구장들의 특별보고에서 공개됐다. 당시 양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고, 김 전 위원장은 이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회장을 맡았다.

당시 특별보고에서는 한 총재와 양승조 당시 충남도지사의 독대 사진이 공개됐다. 만남은 2021년 5월 9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가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양 전 지사의 선거 운동을 도운 정황도 나타났다. 충남권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양승조 당시 충남도지사의 2021년 5월 독대 사진(왼쪽)과 한 총재의 며느리인 문연아 천주평화연합 한국의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는 사진이 같은 달 진행된 통일교 지구장들의 특별보고에서 공개됐다. 당시 양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고, 김 전 위원장은 이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회장을 맡았다.

[사진 독자]

을 맡고 있는 통일교 3지구장 유모씨는 “(양 전 지사가)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참어머님(한 총재)께서 5개 지구장들에게 서로 (양 전 지사에게) 협

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양 전 지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총재와 독대한 적은 있지만, 지역 행사 차원에서 만난 것뿐이다. 특별한 협약을

주고받은 것도 없어 통일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영남권을 종괄하는 5지구는 ‘한·일 해저터널 국가 공약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지구장이던 박모씨는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정책 제안서에 공약 입법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겠다”며 “생명까지 걸겠다”고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 총재의 며느리인 문연아 천주평화연합 한국의장은 2021년 5월 14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을 만나 한·일 해저터널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윤석열 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회장을 맡았다. 그는 “당시 당을 나와 애인이던 시절이고, 그런 사람과의 만남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이찬규·손성배·정진호 기자

## 지방선거 반년 앞두고…통일교가 두 야당 손잡게 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국힘·개혁신당 “반드시 통일교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에는 의견  
양당 회동에 보수연대 불씨 기대감  
이준석 “선거 연대 안한다” 선 그어

정치권을 덮친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맞잡았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양당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연대의 시작점이 되는 것 아니냐”(국민의힘 초선 의원)는 기대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했다. 먼저 도착한 송 원내대표가 첫 원내대표를 맞이했고, 첫 원내대표의 약수 제안에 양당은 손을 맞잡았다. 두 원내대표의 현안 회동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전날 해외 출장

에서 돌아온 천 원내대표가 귀국 직후 송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이 확정됐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통일교 특검을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를 봤다. 회동 후 송 원내대표는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를 함께했다”고 했고, 천 원내대표도 “반드시 힘을 합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자는 점에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다만 특검의 주체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대 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전문가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특검을 주관하자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의 금품 수수 의혹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



송언석 국민의힘(왼쪽),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에 공감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임현동 기자

기)이 여권의 금품 수수 사건을 은폐·무마한 의혹을 모두 들어다붙 ‘쌍특검’을 주장하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의 후에 한정해야 한다며 결을 달리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은 폐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만,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비판한 입장에서 쌍특검을 빌의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당은 이번 주 중 세부 이견을 조율해 다음주 초께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의석수의 한

계를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양당 합쳐 110석(국민의힘 107석, 개혁신당 3석)에 불과하지만 “특검법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범인”(개혁신당 관계자)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단 포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머리를 깨든지, 단식을 하든지 정해서 따르고 강력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이 지방선거 보수 연대에 불을 지필지도 주목된다. 보수 야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민주당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범보수 연대가 필수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연대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의 온도 차가 크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선을 이기려면 개혁신당에 다리 한 쪽도 내줄 각오를 해야 한다”(초선 의원)는 주장도 나오지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연대해 얻을 게 없는 선거”(당 관계자)라는 분위기다.

양수민 기자

## 권성동 “난 돈에 환장 안 했다” 특검, 징역 4년·추징 1억 구형

통일교 돈 1억원 받은 혐의  
권성동 “특검 수사 자체가 모순  
장관 사임한 민주당 사건은 이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법정 최후

진술에서 “저는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과 1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17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종교단체에 찾아가서 득표 운동을 하는 건 정상적 선거운동의

방식이다. 민주당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징역 4년 구형 이유를 “단순 (1억원)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통로를 제공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가 민주당에도 접근해 장관이 장관직 사임까지 했다. 그런데 특검은 4개월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도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이를 이첩했다”며 “형평에 어긋나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최서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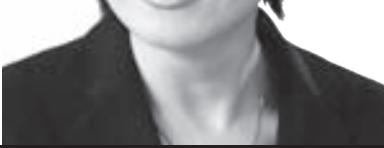
1. 센터빌 벽돌 타운	SOLD \$589,000	방3, 화2.5, 치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60,000	방 4, 화 3.5, 치고2, 최고 학군, RT267/7, 멀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은
3.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톤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렉서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 2 2. 매너시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치고 2 Pending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1, 윗층,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액 플/R195, RT1, RT234, 디자인 편리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애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센터빌 타운	\$499,000	2017 리모델링, 방 3, 화 3.5, 1,740sqft, 지하 1f.bath, 워크아웃, 브레이크/28,66,29 교통요지 Under Contract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연,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www.hyebanmd.com](http://www.hyebanmd.com)

KOREAN BBQ

#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 카페서 ‘일회용컵’ 비용 따로 낸다…빨대는 요청하면 제공

(100원 또는 200원)

## 기후부, 탈플라스틱 업무보고

텀블러 이용 땐 1000원 차액 혜택  
이 대통령 “보증금제는 탁상행정”대왕고래 사업 석유공사 질타  
“수천억 드는데 아무 데나 다 파나”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하면서 공감을 나타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때 보증금(30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자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질문하던 중 웃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 세종·제주에서 시범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 시행이 보류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가격은 가게가 정하는데, 최저선은 정부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정한다. 기후부 관계

자는 “가맹본사에서 점주에게 컵을 납품할 때 100~2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빨대(플라스틱·종이)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 제공한다.

기후부는 텀블러 이용 소비자에게 일회용 컵 비용(200원)과 다회용 컵 혜택(탄소중립포인트 300원 지원, 매장

할인 500원) 등 총 1000원의 차액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컵값을 추가로 받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흥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컵 가격과 음료 원가를 어떻게 구분할지 명확하지 않아 커피 가격만 오를 수도 있다”며 “텀블러 사용이 늘

천권필·김원 기자

## 김종혁 징계, 나경원도 한탄…“여권 악재 쏟아지는데 웬 내부 총질”

(천한계)

김 “누가 헛소리냐” 답면서 공개  
이호선 “대표 모독” 의결서 공개  
김문수 “한동훈은 우리 당 보배”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권고를 놓고  
17일 국민의힘에 후폭풍이 몰아쳤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전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키로 하자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지난 10일 제출된 답변서에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논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당에서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거나 “당원 전체를 망상증 환자 등으로 비유한 적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를 공개하며 “(답변서를 보면)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이호선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 의결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의결서엔 “김 전 최고위원은 공직 직함을 갖고 외부 언론에 출연해 당을 ‘북한 노동당’ 등에 비유해 정체

성을 부정했고, 동료 당원을 ‘망상 환자’로 낙인 찍었으며,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표를 ‘영혼을 판 사람’으로 모독했다”고 적시됐다. 또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배제할 수 없다”고 쓰였다.

의결서 공개를 두고 당규 위반 논란도 불붙었다. 당무감사위 규정은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등은 전자 자료 형

태로 10년간 대외비로 보관한다”고 돼 있다.

천한계 박상수 변호사는 “의결서 공개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위원장은 “윤리위 회부 의결서는 형사 절차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중진 의원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등 여권을 겨냥한 악재가 쏟아지는 시점에 왜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5대 사법 과정 악법”에 ‘3대 입틀막법’에 저항하고 있는 시점에 (징계 권고 결론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쇄신파인 김영태 의원은 SBS에 출연해 “당무감사위나 윤리위를 정직을 지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등 모임에서 한 전 대표를 만나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라며 손을 잡았다.

박준규 기자



## 점점 민주당과 멀어지는 조국 “문 정부 때보다 집값 더 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공급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를 향해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각을 세운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 정책에 선 중도실용을 주장하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 대가 내부에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그런 기류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3일 취임 후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의 내란전당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서왕진 원내대표)며 반대한 게 대표적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는 처음부

터 민주당의 첫 법안에 위헌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상도동 김영삼민주센터를 찾은 것도 지난달 21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민주당과 대비됐다.

한영익 기자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타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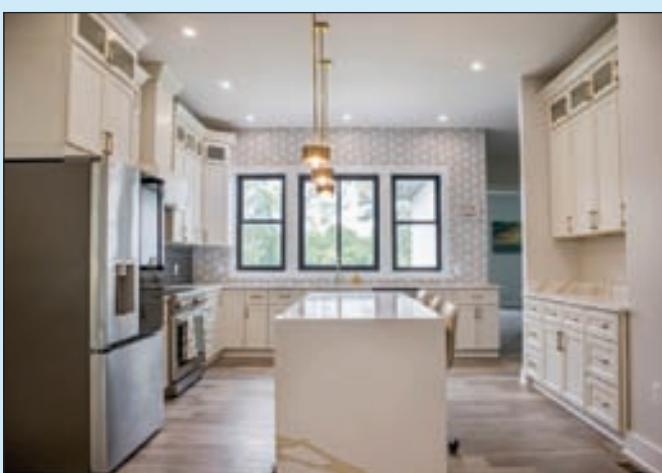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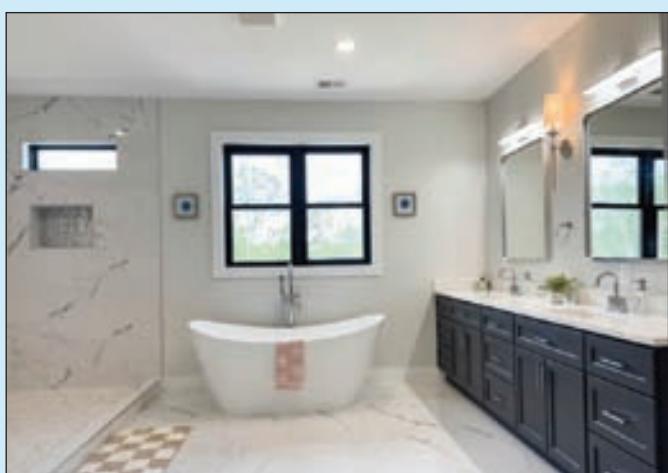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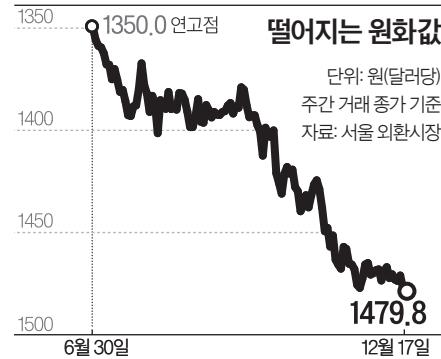
# 원화값 장중 1480원 무너져 … 이창용 “안심 못할 수준”

이창용 “자영업·건설·내수 피해 커”  
바나나 20% ↑·미국산 갈비 17% ↑  
유류·정비비 인상 항공사 등 타격

달러 대비 원화값이 17일 장중 한때 1480원 선까지 하락했다(환율은 상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와 양극화 측면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기준 1479.8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82.3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여파가 커진 4월 9일(장중 1487.6원, 종가 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 설명회에서 원화값 급락을 두고 “K성장”으로 불리는 반도체·조선 등 수출업체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건설·내수·자영업 부문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짚었다. 원화값 하락이 그 격차를 크게



벌써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소비자에게 와닿는 수입 먹거리 물가가 부담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정보에 따르면 바나나는 이 날 100g당 345원으로 작년보다 약 20% 뛰었고, 파인애플은 개당 7918원으로 26.9% 올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산 갈비살(냉장)은 이달 평균 가격이 4965원으로 1년 전보다 17%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할당관세 종료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산업도 원자(低) 부담을 체감하

고 있다. 항공사의 경우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해외 체류비 등 주요 고정 비용을 달러로 결제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정유업계는 파생상품 거래 등을 활용해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다.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수입 산지 다각화로 가격 부담을 낮춰 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 다만 환율이 현재 1470원 안팎에서 유지될 경우, 물가 상승률은 약 0.2%포인트 더해져 2.3%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평균적으로 원화가치가 10% 하락하면 물가가 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1%대 신호가 나오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선에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달러 대비 원화값이 장중 한때 1480원 선까지 떨어지며 8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외화 거래 가격이 표시돼 있다.

## “죽 써서 개 줄 셈인가” 여권 강성층, 내란재판부법 손질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하기로 하자 17일 여권 안팎에서 ‘무용론’이 빚발쳤다.

내란재판부를 강하게 밀어붙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위한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대법원장)의 진두지휘 아래에 있는 법원이 막무내내로 위헌하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썼다. 법사위가 지난 3일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지난 16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외부 인사를 뺀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 키로 한 걸 비판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마음이 몹시 아둡다”고 적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친여 유튜브 ‘매불쇼’에 나가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이”나들답답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재판부로 조희대 판여를 제한하는 ‘플랜A’가 보류 상태이니 법

왜곡죄를 만드는 ‘플랜B’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재판부가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놓지 않을 경우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고 강조하면서다.

친여 진영의 반발은 더 노골적이었다.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주도했던 재야 단체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민주당사 앞에서 ‘죽 써서 개 줄 셈인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철회하라’는 항의 회견을 열었다. 이

들은 수정안을 “내란 공범인 조희대와 지휘연에게 재판부 구성과 재판 절차를 모두 넘기게 되는 안”이라며 “민주당이 오로지 헛깨비 같은, 이른바 ‘위헌 소지’라는 조작된 논란에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심의 바로 미터’로 지목하는 판지일보 게시판에 “위헌 어그로(도발)에 말려 고작 한다는 짓이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종일 올라왔다.

문제는 이런 반발에도 내란재판부법의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모두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윤진수 서울 대 명예교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강성 법사위의 질주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는 내란재판부법 처리를 위해 내내 내달렸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서야 뒤늦게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내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심새롬 기자

## 12월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검토…행정시스템 이중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현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전산망 마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차등지원 지수’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유공 포상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기념일을 정하는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정부 법안이 윤과를 드러낼 것으로 윤 장관은 내다봤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가 적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중수청에 무조건 검사가 많이 와주면

좋겠다고 보다는, 수사에 유능한 검사가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과된 법안에 따라 중수청에 어느 정도의 인원 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을 통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업무를 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정부 업무에 AI로 구현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AI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3개의 핵심시스템에는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재해복구(DR) 체계로 우선 구축한다. 배터리, 항온·항습 등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비 기준은 민간 수준까지 높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 최지호

##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풀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졸업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 혜택도 두 배, 기쁨도 두 배

더블 혜택으로 더욱 특별해진 우메肯 선물

▶ 12월 31일까지

우메肯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을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肯**을 선물하세요

## 10% 할인 + 무료 선물

**\$980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100억  
유산균  
**\$39**

OR



씨(C)밸런스  
**\$25**

**\$165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건강 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399~~ ▶ **\$359**

L칼슘(\$69)  
**무료증정**



**무료증정**

OR



### 건강을 담은 특별한 선물!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되시나요?

우메肯 기프트카드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이들이 원하는 건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특별한 날, 진심을 담은 선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UMEKEN  
Gift Card

실속있는 연말선물 - [우메肯 기프트 카드](#)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한두잔은 괜찮아”… 송년회 이런 분 틀렸다

술, 담배·석면 같은 1군 발암물질 국민 3명 중 2명 소량 음주는 허용 주 5일 음주 땐 암 발병위험 46%↑

직장인 정도(40)씨는 와인을 한 번에 한두잔씩 즐겨 마신다. 소주·양주 등 도수가 높은 술은 거의 입에 대지 않지만, 와인 약속을 꾸준히 잡고 집에서도 혼자 마시곤 한다. 그는 “조금 마시면 별로 취하지도 않는다. 잊은 폭음만 피하면 큰 문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하루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지 않느냐’는 식의 질문이 종종 올라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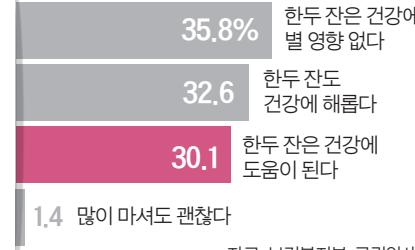
이처럼 한국 사회에선 ‘야주’로 통용되는 술과 건강에 대한 오해가 흔하다. 실제로 성인 대부분이 술을 조금만 마시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해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2572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30.1%)은 “한두잔의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두잔은 건강에 별 영향이 없

다”(35.8%)는 응답을 합치면 3명 중 2명은 소량 음주에 허용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실제 음주 행태는 이와 거리가 있었다. 술을 마신다는 응답자들에 한번에 마시는 양을 물으니 1~2잔이란 응답자는 28.1%에 그쳤다. 반면 5잔 이상이란 비율이 절반 가까운 46%였다 (7~9잔 16.1%, 5~6잔 15.8%, 10잔 이상 14.1%). 술에 관대한 자세가 음주량을 크게 키우는 셈이다.

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담배·석면 등과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서 각종 암을 유발할 가능성

##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니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2572명 조사(지난해 11월)



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의미다. 술을 입에 대는 것만으로 여러 건강 문제가 증폭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국내·외 연구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세계 질병부담 연구(GBD Study)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한두잔 음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을 낮췄지만, 암을 비롯한 나머지 질환 위험도는 음주량에 따라 점차 늘어났다. 소량 음주의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폐해가 이를 상쇄하고 넘어서는 셈이다. 이는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을 최소화하는 음주량은 ‘0’이라는 걸 보여준다.

또한 하루 2~3잔 이하의 소량 음주를 일주일에 5회 이상 이어가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이 46% 커진다는 연구 결과(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도 있다. 강재현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는 “최근 의학 연구들이 한두 잔도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방향으로 많이 나온다”면서 “한국은 반주 문화가 강한데다 안

주를 잘챙겨 먹는 편이라 비만 등 생활 습관 관련 질병도 늘리는 경향이 큰데, 최대한 술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립암센터는 최근 국민을 위한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을 내고 “안전한 음주는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술로 인한 건강 상 위험은 한 모금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그러면서 “주종과 상관없이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술의 발암성은 주종이 아니라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양에 비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술을 적게 마시려면 “음주량을 줄이는 동시에, 음주 횟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연말연시 음주 모임이 이어지면서 술 한두잔만 마셔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소량 음주는 괜찮다’는 생각 속에 음주운전 등 각종 사고도 늘어나는 만큼 절주·금주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오전까지 미세먼지 출근길 마스크 필수

## ‘저속노화’ 정희원, 전 직장동료 스토킹 혐의 고소

“부인과 이혼 후 결혼해달라 해”

정, 전 직장동료와 일시적 교류 인정

저속노화 권위자인 정희원(사진) 저속 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전 위촉연구원 A씨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희원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지난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며 “최대한 원만

하게 합의하려고 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난 6월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등의 연락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에도 A씨가 아내의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이 계속되자 정 대표는 지난 10월 20일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

지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정희원과 그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이후 A씨가 돌변해 ‘저속노화’는 자신이 만든 말이고, 저서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해 해당 수익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A씨와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의 집필 능력이 낮아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해 올

해 관련 계약 해지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이후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희·김창용 기자

17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까마귀가 뿐연도시 위를 비행하고 있다. 이날 대기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미세먼지 농도는 18일 오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조 본격화

### “주중 법안 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전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했다.

양당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자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통일교 관련 의혹이 있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비공개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한변협·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 추천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을 상대로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선 정당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데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1차적으로 특검 후보자를 4명 정도 추천하면 이후 정당이 후보를 2명으로 추려내는 방식도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수사 범위를 두고도 미세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팀이 여권의 금품 수수 사건을 은폐·무마한 정황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두 의혹을 분리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로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견해였다”며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28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검하수(눈꺼풀 처치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mailto: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챕터 7·챕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챕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여당 DMZ 법 추진에…유엔사 “우리가 통제권” 이례적 성명

〈정부 승인만으로 출입〉

유엔사, 정전협정 법적 근거 내밀며  
“한국 대표해 유엔사령관이 서명”  
DMZ 출입 관할권 논란에 공개 반박  
통일부는 그래도 “입법 지원할 것”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과 관련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한국을 비롯해 당시(한국전쟁에 파병한) 22개국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라며 협정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강조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법’ 등에서 유엔사의 DMZ 출

입 허가권에 제동을 걸려는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현재 유엔사 18개 회원국과 한국을 대표해 정전협정 조건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 임무는 정전협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수행된다”면서다.

유엔사가 이처럼 군사정전위의 권한에 대한 근거를 성명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여당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 등

을 통해 유엔사의 승인 없이 정부 자체 판단만으로 인력과 물자가 DMZ를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엔사는 한국군을 대표했다’고 강조한 건 유엔사가 한국군의 권한까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라 뜻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역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정전협정 서명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 미 육군 대장과 조선인 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자

원군사령원 평더화이(彭德懷)로 돼 있다. 이는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데 따른 것이다.

유엔사는 성명에서 “유엔사 군사정 전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DMZ 내 인원 이동이 도발로 비치거나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고도 했다.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규율하는 정전협정 상 DMZ 관리 관련 규정을 소개하면서다.

이는 정부 고위 당국자 등이 최근 유엔사의 DMZ 출입 불허 사례 등을 공

개적으로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에 대해 “출입을 불허 당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유엔사 성명에 대해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석용 기자

## 시진핑, 김정은 방중 포상? 중국 설탕 1000만 달러치 북한 갔다

〈9·3전승절〉

설탕·쌀은 체제 유지 주요 수단  
김정은, 정상회담서 요청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을 맞아 방중한 이후 북·중 간 설탕 교역량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은 쌀과 함께 김정은의 주요한 체제 유지 수단인데,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수출 물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교역 상품 가운데 중국에서 북으로 유입된 설탕의 양은 8월 2729t에서 9월 1만 2601t으로 4.6배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각각 149만 4000달러(약 22억원), 720만 1000달러(106억원) 상당이다. 10월에도 설탕 수입량은 5507t(309만 8000달러 상당)을 기록했다. 9~10월에만 1만 8108t이 북한에 들



김정은, 김정일 사망 14주기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4주기를 맞아 노동당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노동신문]

어갔다. 액수로 보면 약 1029만 달러(약 152억원)어치다.

김정은의 방중 직후 북·중 설탕 교역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건 고위급 합의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9월 북한의 대중국 설탕 수입량은 월 기준 올해 최대치”라며 “같

은 기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설탕을 무상 지원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나 연말연시 등 체제 선전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설탕과 곡물을 주민에 나눠준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을 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가공식품·소비재 등 경공업이 취약한 북한에선 설탕 자체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설탕·당과류 등을 체제 충성심을 유도하는 통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맞았고, 내년 1~2월쯤에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대규모 설탕 확보는 이를 겨냥한 물량 비축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파병 부상자·전시자 가족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측에서 먼저 올해 당 창건 행사 등을 이유로 설탕 수입 확대를 중국에 요청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러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설탕 등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발 수입량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김정은은 17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4주기(2011년 12월 17일)를 맞아 평양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유정 기자

## 러시아 망명 신청 북한 국적자, 지난해 10명…소폭 반등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 의 수가 지난해 10명으로, 수년간 이어 지던 감소세를 뒤집고 소폭 반등한 것 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전했다.

NK뉴스는 러시아 정부의 부처간 통합 정보 및 통계 시스템으로 공개된 내부 집계를 인용해 북한 국적자의 러시아 망명 신청 건수가 2017년 32명, 2018년 23명, 2019년 20명, 2020년 14명, 2021년 12명, 2022년 11명, 2023년 8명, 2024년 10명, 2025년 상반기 1명이었다

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자료는 내년 2월께 나올 전망이다.

2024년 데이터를 분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3명에 불과했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군병력을 지원하기 직전인 3분기에는 6명으로 늘었다.

북·러 관계 전문가인 앤서니 리나 시노-NK 연구그룹 소속 선임연립자는 일부 북한 군인이나 노동자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민 자격 인정을 신청했을 가

는 기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설탕을 무상 지원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나 연말연시 등 체제 선전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설탕과 곡물을 주민에 나눠준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는 ‘쿠르스크 작전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러시아가 망명 신청을 허가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던 경우”라고 NK뉴스에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러시아에 대규모로 유입된 북한 출신 노동자들 중 일부가 망명을 신청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데이터베이스센터(NKDB)의 유니크 김은 이런 진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러시아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 스럽다면 “의미있는 추론”을 해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파병된 군인들은 근로자들과 별도로 관리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국적자의 망명 신청을 러시아가 받아 줄 확률은 “매우 낮다”며 “2010년대에 한 건 정도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주민 211명이 러시아에 망명신청을 했으며 그 중 승인된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90명은 기간이 1년인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았다.



2025년 9월 3일 중국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구강교육치과

## 나트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트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 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우리말 바루기

전기가 누전됐다고요?

예전에는 전기가 전깃줄 밖으로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했다. 그러나 누전차단기 설치가 법제화돼 전국적으로 보급된 이후 그 같은 사고가 줄어들어 “전기가 누전돼 시장 일대가 전소됐다” 등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는 일이 감소했다.

위 예문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전기가 누전되다’는 매우 많은 이가 아무 의심 없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누전(漏電)’은 ‘샐 누(漏)’ 자와 전기를 나타내는 ‘번개 전(電)’ 자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다. ‘누전’이라는 단어에 이미 ‘전기(電)’라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쓴 셈이 된다.

‘전기가 새다’ 또는 그냥 ‘누전되다’만 써도 충분하다.

우리말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 하나하나가 지니는 의미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처럼 불필요하게 중의적인 표현을 쓰기 쉽다. ‘전기가 누전되다’ 외에도 ‘돈을 송금(送金)하다’를 예로 들수 있다.

‘송금’은 ‘보낼 송(送)’ 자와 돈을 나타내는 ‘금(金)’ 자가 만나 이뤄진 낱말이다. ‘송금’에 이미 ‘돈(金)’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므로 ‘송금했다’만 쓰거나 ‘돈을 보내다’라고 하면 된다.

##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암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 지식재산 컨설팅

## 미국 저작권 청 독립 추진 의미는



지은정  
미국 특허변호사

지난 11월 12일, 미국 하원에서 저작권청(USCO)의 지위를 재정비하는 입법부 기관 명확화 법안(H.R.6028)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 도서관 산하에 머물던 저작권청을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저작권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채택된 법안은 아니지만,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특허·상표와 저작권의 분리 구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분리형 IP 행정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허상표청(USPTO)은 산부부 산하의 행정부 기관이고, 저작권청은 의회도서관 산하의 입법부 기관이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허저작권 데이터가 얹힌 복합 분쟁이 늘자 조정 비용과 정책 불일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편 논의는 미국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향방과는 별개로, 미국이 ‘독립성 강화’ 혹은 ‘향후 통합 가능성’이라는 방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하다.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행정모델을 살펴보면, 미국의 고민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IP) 행정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정책 철학을 반영한다. 중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완전 통합형’ 모델을 택했다. 중국은 CNIPA를 중심으

로 특허·상표·저작권 집행 기능까지 일원화해 빠른 대응과 강력한 단속 역량을 확보했다. 영국의 UKIPO 역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종합함으로써 정책 일관성과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 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일본·미국은 ‘분리형’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체재산권·저작권을 분리하여 담당한다. 일본 역시 특허청과 문화성이 각자의 역할을 맡는 구조를 고수한다. 분리형은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콘텐츠·데이터가 융합되는 시대에는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또 다른 모델로 유럽연합(EU)의 ‘기능적 통합형’ 모델도 있다. EU는 특허(EPO)와 상표·디자인(EUIPO)이 조직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단일 특허법원(UPC)과 EU 단일제도를 통해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작동한다. 행정적 통합이 아닌

제도·절차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왔다. 이처럼 세계는 통합형·분리형·기능적 통합형의 다양한 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의 구조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통합형은 속도와 일관성을 제공하지만 전문성의 폭이 줄어들 수 있고, 분리형은 전문성이 높지만 정책 조정이 어렵다. 기능적 통합형은 유연하지만 구조적 복잡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어디쯤 있을까? 우리 나라는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며 IP 정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저작권의 이관 문제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있지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해외 IP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IP 행정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 법안은 통합 자체를 권고하는 신호라기보다, AI 시대 IP 행정체계의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남는다. 한국의 산업·행정·법체계 속에서, 어떤 IP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통합형과 분리형 사이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미국의 저작권 청 개편안은 그저 하나의 법안 일 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설계할 때 참고해 볼 만한 신호임은 분명하다.

## 열린광장

## 등가개념(等價概念)과 금성



윤경중  
연세목회자회 증경회장

곧 2026년 새해가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새해의 이름은 병오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 똑같이 부를 새해가 그 이름처럼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속과 겉이 똑같이 하나로 보이는 낱말이 생각났다. 등가개념(等價概念)이란 낱말이다.

이를테면 아침 일찍 뜨는 샛별과 저녁에 보는 개밥바라기는 그 내포는 다르지만 바깥은 아주 똑같은 금성(金星)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금성을 일컫는 이름들도 여러 가지다. 우리 한국에서는 초저녁에 나타나는 별을 개밥바라기 또는 태백성(太白星), 새벽에 볼 수 있는 샛별을 계명성(啓明星)이라 부른다.

그런데 등가개념의 속성이 문제다. 속이 야 어떻든 바깥이 똑같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이는 것처럼 속도 똑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어 가운데 한문으로 인공(人工)이란 것이 있다. 자연물을 사람의 힘으로 다르게 바꿔 놓는 일 또는 아주 새로운 것으로 바꿔 놓는 일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이 인공이란 말이 그냥 사물을 바꿔

놓는 뜻인지 또는 요즈음 AI 형태의 사람을 만드는 뜻인지 인공이란 낱말만 보고서는 그 속내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인공의 정의(定義)에 문제가 생긴다. 자연물을 사람의 힘으로 달리 바꿔 놓는 일이나 또는 새로운 것으로 바꿔 놓는 일이라면 뜻은 맞지만 AI 형태의 사람을 만드는 뜻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예수’를 ‘이에스’라고 적는다. 일본어로는 예수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 어느 일본 학자는 한국어 인공의 정의 속내에 AI 형태의 종교적(이에스적?) 속성이 들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본식 사고방식에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특히人工의 한문자 를 일본어로 ‘이에’이며 여기에다가 한글의 ㅈ를

붙여 ‘이에스’라고 불러 종교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금성을 비너스(Venus)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별빛을 바탕으로 개밥바라기와 샛별이 금성이란 이름으로 등가개념이 이뤄졌지만 미국에서는 금성과 지구가 크기가 비슷하여 금성을 ‘지구의 쌍둥이’(earth’s twin)이라 일컬는다.

금성은 그 크기가 직경 1만2100 킬로미터로 지구보다 644 킬로미터가 작다. 금성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위성보다 그 빛이 밝다. 옛날 천문학자들은 아침에 뜨는 금성을 포스포루스(Phosphorus), 저녁에 뜨는 별을 헤스페루스(Hesperus)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 별들이 둘이 아니고 같은 별임을 알고 그 이름을 로마의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을 사모해서 비너스라고 지었다고 한다.

금성이 한국에선 등가개념이라 철학적 산물을, 미국에선 우주과학의 무인항행을 선사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컫는 등가개념의 속성이 금성처럼 유익한 선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베지니아와 멜릴랜드 법원, 베지니아와 멜릴랜드 연방지법,

베지니아와 멜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환경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할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불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이름변경·교통사고·위임장  
아포스티유·가족이민·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38세 성인이 애들 옷 입은 격... 헌법, 새 시대 새 계약 절실

아마도 '전문, 본문 130조, 부칙 6조', 1만4400자 안팎의 우리 헌법을 다 읽어본 국민은 거의 없을 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1조 정도가 우리가 떠올리는 헌법이다. 공기처럼 우리 의식 밖에 존재하다 단행, 촛불 시위 같은 나라의 대혼란 때면 '키다리 아저씨'처럼 심판을 내려 주려고 모습을 드러내왔을 뿐이다.

그런데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할까. 모든 제도는 태어날 때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우리 헌법의 1987년 개정 과정을 되돌려보면 개헌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3658 달러, 세계 평균을 처음 넘어선 수준이었다. 수출은 471억 달러, 세계 13위권이었다. 38년 뒤인 지금 1인당 GDP는 추산 3만5962달러(세계 37위권)로 10배 넘게 커졌다. 수출액은 15배 폭증한 7000억 달러로 세계 5위권을 넘본다. 상진벽 해지지만 경제에 관한 우리 헌법 조항은 130조 중 9개에 불과하다. 불변의 원칙이어야 할 '시장경제' 역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한마디만 찾을 수 있다. 나머지 모두도 추상적 선언에 그친다. 갈수록 논쟁적 빅 이슈인 독과점, 불공정 거래를 조정해 줄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단한 줄이다.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한 줄로 지금의 복잡다각한 거래들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38세 성인은 여전히 초등생 옷에 몸을 맞춰야 하는 신세다.

## 지방자치 30년, 헌법 규정은 달랑 2개

정치적으로 커진 몸이 더욱 힘든 웃이다. '체육관 선거' 대신 '내 손으로 대통령을' 이란 당시의 열망은 역으로 다른 모든 미래에의 숙의(熟議)를 건너뛰게 했다. 여야 '8인 회담'의 첫 회의 뒤 두 달 열흘 조금 지난 87년 10월 12일 지금 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핵심들의 얘기가 이랬다. "큰 어려움은 없었다. 골자인 대통령 직선제에 이미 합의가 있었으니, 김영삼·김대중 씨에게 보고해 승인만 받으면 일사천리였다" (이용희 전 의원). 김영삼 총재 역시 '직선제 합의'로 90%가 타결됐고, 대선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 소한 문제엔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했었다. 속전속결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끼어들 시공간이란 없었다. '87년 개헌은 한마디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3인이 만든 것' (강원택 서울대 교수)이다. '나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3인의 뜻의 산물이었다.

지금 헌법은 그렇게 '사소한 문제'들을 빼뜨린 걸까. 우선 후대가 지금껏 고통을 겪던 유품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돌아가며 '제왕'을 즐길 꿈에 부푼 김영삼·김대중·노태우 3인에게 그런 '정치적 신중함(prudence)'이 자리 잡을 여백은 없었다. 여야 정당 간, 행정부와 국회의 격차와 균형이라는 수평적 책임성, 국정 안정 같은 미래가 우리 헌법엔 보이지 않던 까닭이다.

87년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한 최소 연령인 67년 10월 29일 이후 출생자는 지금 인구의 70%다. 개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와 인구의 나라다. 70%가 서명조차 하지 않은 공동 계약서란 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130개 중 달랑 2개다. 그나마 '지자체가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 뿐이다. 독일은 헌법의 44.2%가 연방 및 지방 자치권 관련 내용이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며 국가 운영 원리로 지방 분권(décentralisation)을 헌법에 명시했다. 국민의 82%인 4180만 명이 서울밖에 사는 이 나라의 계약서엔 그러나 '지방'이 없다. 시대의 이슈인 복지를 위한 책무는 어딘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35조)라는 단 한 줄이다. '노력'이란 단어는 매우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그 때의 '사소한 문제', 즉 경제민주화, 지방자치, 복지 등은 이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골간이다. 그러나 계약서에 그 정의조차 없으니 정부의 권한·책임 역시 모호해 이 중요한 문제들은 늘 정쟁의 높에서만 허우적거려 왔다.

헌법 재건축의 방향은 명확하다. 권력의 분산으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민주성'이 첫째다. 둘째는 적대 정치, 세대·성별 갈등을 완화해 줄 '평화성'이다. 반면에 국정 성과를 극대화할 '효율성'이 셋째다. 모든 지역, 국민에게 균등한 발전, 복지 혜택이 돌아갈 '보편성'이 넷째겠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 나리를 순방향으로 맞춰줄 '미래성'을 지녀야 한다.

승자 독식 제왕 대통령을 해소할 '민주성'을 위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거론됐다. 최근 여론조사(2024년 11월, 미디어리서치)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3.8%로 압도적 1위다. 5년 단임제(21.6%),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인 이원집정부제(9.1%), 의원내각제(6.8%) 순이다. 5년 단임은 국민이 선출권만 가졌던 반면, 4년 중임제는 선출권과 현직 대통령 심판권을 모두 가



87년 개헌-6·29 선언



72년 개헌-유신헌법



54년 개헌-사사오입



4

안(선거제도 개혁, 세비 결정, 징계의 결)엔 국회 내에 중립적인 '제3자적 시민 숙의 기구'를 두어 구속력을 주자는 제안은 신선하다.

'보편성'을 위해 지방분권 정신을 명확히 선언하고 중앙·지방 정부 간의 권한·책임, 협력 의무도 선명히 해줘야 할 새 헌법이다. '효율성'·'미래성'을 지닐 헌법에는 '시장경제' 원칙의 확고한 천명과 함께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 범위, 재정 역할, 국가 재무와 복지 지출 비율의 최적 균형(optimal equilibrium)도 담아내야 한다. 특히 '보편성'과 '효율성'의 충돌은 가장 숙고해야 할 개헌의 지점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을 비교, 토론할 공론의 장에서 이 같은 나라의 미래 기조를 정리하고 가야 할 때가 아닌가. 다가온 미래인 AI와 인간의 상생, 인간 권리 보호, AI 주권(AI sovereignty)과 국제 연대의 공존 논의 역시 새 헌법에 '미래'라는 가치를 더해 줄 터다. 지속 가능한 환경, 핵의 평화적 사용, 재생에너지의 적정 비율(RES:Renewable Energy Share),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통한 선거 참여 확대 등이 모두 미래로의 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우리의 삶이다.

## 사사오입·유신... 정치, 개헌에 악몽 씌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정치다. 정권은 늘 "나라가 위기인데 개헌이 다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며 반대하기 일쑤였다. 기득권 지키기의 핑계였다. "재집권 꼼수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야당의 화들짝 손사래도 한몫했다. 발췌, 사사오입, 유신, 국보위 개헌 등 '개헌'이란 단어에 악몽을 심어 놓은 주범은 바로 정치였다. 그러나 지금 그 어떤 정치의 반대로 새 시대, 새 계약서가 필요한 공동체의 절실함을 넘어서는 없다.

국민이 자기 삶과 계약서 사이의 적합성에 의문이 생기면 그때가 바로 개헌의 적기다. 헌법학자인 브루스 애커먼은 이 분수령을 '헌법적 순간(Constitutional Moment)'이라고 규정한다. 그 헌법적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향후 60년의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60번째 트리거는 바로 미래로의 개헌이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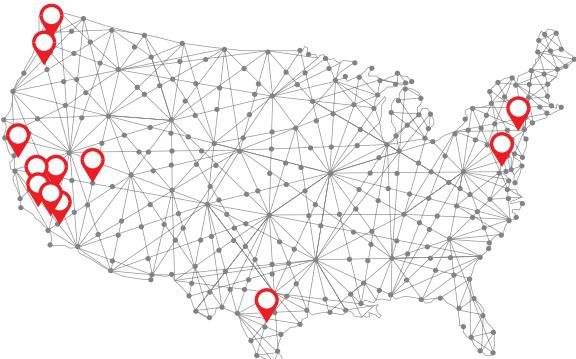
최훈 대기자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제헌헌법	1948년 7월 17일 •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 대통령·부통령 간선제 • 국회 단원제
1차 개헌 발췌개헌	1952년 7월 • 대통령·부통령 간선제 • 국회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 국무총리 폐지 • 자유시장경제 체제 명시
3차 개헌	1960년 6월 • 내각책임제 도입(총리직 부활) • 지방자치제 실시 • 헌법재판소 설치
4차 개헌	1960년 11월 •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반민주행위자 처벌 소급입법
5차 개헌	1962년 12월 • 대통령제, 국회 단원제 환원 • 헌법재판소 폐지
6차 개헌 3선 개헌	1969년 10월 • 대통령 3선 금지 조항 폐지 • 국회·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7차 개헌 유신헌법	1972년 12월 •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임기 6년) • 대통령 중임·연임 제한 규정 폐지 • 국정감사권 폐지 등 국회 권한 축소
8차 개헌	1980년 10월 • 대통령 7년 단임제 •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9차 개헌	1987년 10월 •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 국정감사권 부활 등 국회 권한 강화

질 수 있다. 의회 다수로 선출된 종리가 내치를,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관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념은 권력 분산의 공통적 대안이었다. 결선투표제로 '과반 대통령'의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절대다수다.

최근 정국은 불가침의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미국은 1791년 제정 헌법에서 연방대법관에게 종신 임기를 부여하고, 의회가 대법관 급료조차 깎을 수 없도록 사법부 독립을 못 박았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사안엔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삼권분립의 미국 헌법은 숱한 인종·계층 갈등을 해쳐 오며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준 토대였다.

대통령제·내각제 요소가 애매하게 뒤섞인 우리나라에선 대통령과 의회의 명확한 분립, 견제도 과제다. 국회의 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대통령 임명직의 국회 동의 확대가 해법으로 제시돼 왔다. 정쟁의 근원이던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제한, 국감 내실화, 신상털기 청문회 개혁 등은 '평화성'을 위한 제언이다. 국민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의원 자신의 사



##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신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증/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 메이틀랜드 치료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Licensed Acupuncturist



- 신경발달 치료
- 보보스 치료



- 근육 통증 치료
-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 관절/근막이완 치료

메디케어 / 교통사고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여행자 보험, 캐쉬플랜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텀빌, 첼터리 지역]

## 시설

## 아슬아슬 생중계 업무보고…대통령 일방통행 돼선 곤란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진통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 현장 분위기가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장점은 있지만, 즉흥적이거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오해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반응도 있다”고 농담했지만, 아슬아슬한 장면을 속출하며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어제는 이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이에 난데없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업무협약)를 맺었기 때문

에 (외화 밀반출 단속은)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는다고 나와 있다”

며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이 사장을 비난했다. 그 러자 이 사장은 곧장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이 업무 범위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부터가 황당하고 민망한 일이다.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탈모 치료제의 건강 보험 적용 검토 지시가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보 기금

은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조금이라도 건보 적자를 줄이려면 감기 같은 경증 질환에 혜택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에 없던 항목을 건보에 추가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의료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현장의 의료 전문가들은 난색을 보인다. 더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존엄한 방법으로 마지막을 선택하도록 돋는 것은 좋지만, 돈 때문에 치료를 그만둔다면 윤리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대통령이 각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건 필요 한 일이고, 역대 정권에서도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대통령이 관여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기관장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지시한다면 지지자들이 보기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꼭 넓게 듣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가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는다는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잡음을 키우는 건 아닙니다 되돌아보기 바란다.

## 당내 비판에 ‘입틀막’ 국민의힘, 여당 비판할 자격 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17일)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2년 징징계를 권고한 당무감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장 대표는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와 달리 계엄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현직 당협위원장은 ‘적’으로 규정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당내 비판을 힘으로 틀어막는 일 자체가 오히려 해당 행위가 아닌지 자문해야 할 일이다.

최근 국민의힘의 퇴행적 행보는 점입가경이다. 계엄을 옹호하는 주류 ‘윤어계인’ 세력이 친한동훈계에 공세를 펴는 모습은 보수 정당의 이성을 의심케 한다. 당 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의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파시스트적” 등의 발언이 당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엽적 표현을 꼬투리 삼아 반대 세력의 비판을 누르는 전형적 행태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소 임자(주인)가 소를 단속하지 않아 남녀를 막론하고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구약 구절을 인용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겨냥했다.

최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에 대표적 친윤 세력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임명되는가 하면, 당내 ‘계엄 정당론’을 대변하는 김민수 최고위원도 국민소통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당내에서도 “보수 우파 결집의 종지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당의 퇴행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 크다.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수의 재건에 앞장서야 할 당 대표가 당내 계엄 옹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당내 비판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는 보수 가치의 재정립을 언급하고 당명 개정도 검토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갈팡질팡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어제 특검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주중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오른 장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명 개정 정도로 민심과 멀어진 당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현실 인식이 안 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틀막 3대 악법’을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다른 목소리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징계로 다스리는 정당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와 다양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

정효식의  
시시각각

時 視 問 角

## 그날 밤 김건희는



당일 오후 6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한남동 관저로 귀가했으며, 남편의 대국민 담화를 TV로 보고 알았다는 사실을 성형외과 의사, 보좌한 행정관, 경호 인력 등 조사로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그날 밤 김 여사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수행한 최측근 A씨와도 동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의 중대 발표 소식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문의를 받고는 내용 확인자 관저를 방문했다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장면을 시청했다고 한다. “미쳤나. 나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하느냐”란 김 여사의 최초 반응을 목격한 장본인이다. 특검팀은 당일 김 여사의 행적 외에 통신 내역도 확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 비서진들에게 소재를 확인하는 등의 계엄 사전 인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외에도 계엄 이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내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 선포

민주 강경파, ‘김건희 면죄부’ 비판  
내란특검, 계엄 당일 동석자도 조사  
2차 특검, 정치수사 논란만 키울 것

로 모든 게 망가졌다”고 분노하면서 부부싸움을 벌여 이를 뜯어말렸다는 관저 팀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후 시작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주동장군들과의 관저 만찬 등 계엄 모의 과정에서 김 여사는 한 번도 배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놓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권력을 분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도적으로 견제하고 배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김 여사 ‘내란’ 면죄부를 이유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 특검’ ‘3차 특검’이든 하겠다는 태세다. 김 건희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추가 수사 중인 건 아예 논외로 삼는다. ‘정치 특검’ ‘정치자판부’ 논란은 둘째로 치고, 특검으로 언제까지 날을 지새울지 답답할 뿐이다.

사회부국장  
사실 특검이 김 여사의 후 수사를 허술하게 한 건 아니다. 김 여사가 12월 3일

##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메일 [sarangbang@joongang.co.kr](mailto: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전체계약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화사통신社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기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아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 CMM 회원 혜택

####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KOREAN

PREMIUM

**LOTTE**<sup>PLAZA</sup> market

SINGO

PEAR



DEC.18th - DEC. 24th, 2025

# Korean Pear

# 한국 신고배

LIMIT  
5 BOX

**7-8과 7-8's**  
~~\$30.99~~  
**\$25.99**

**9-10과 9-10's**  
~~\$29.99~~  
**\$24.99**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Sterling, VA  
30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66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ek Ln.  
Centreville, VA 20121Chantilly, VA  
13955 Metrowest Dr.  
Chantilly, VA 20181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81Ashburn, VA  
433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Elliott City, MD  
43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ott City, MD 21043Cotonaville, MD  
6800 Baltimore National Pike  
Cotonaville, MD 21228Rockville, MD  
7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 파이낸스 & Sports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December 18, 2025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규모가 큰 신종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현 대표 변호사(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 치과 임플란트 ]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프)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매출한 평생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8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LA서 중간소득이 살 수 있는 집 0.5% 불과

뱅크레이트 전국 도시 조사  
마이애미는 0.4%로 최악  
20% “평생 집 못 살 수도”

부동산정보업체 뱅크레이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LA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 가운데 중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것은 0.5%에 불과했다. LA보다 상황이 안 좋은 도시는 마이애미 한 곳뿐이었다.

뱅크레이트의 이번 조사는 도시마다 중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매물의 비중이 얼마인지 분석하고 집값과 소득 격차를 비교해 주택난의 현실을 확인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의 4채 중 3채는 중간소득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주택의 구매력 균형으로 볼 때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진 것이다.

현재 평균적인 가구의 연소득은 약 8만 달러다. 레드핀 기준으로 43만5000 달러선인 중간 가격대 주택을 사려면 연소득 11만3000달러가 필요한데 여기에 훨씬 못 미친다. LA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등에서 중간 가격대 주택을 사려면 연소득 20만 달러가 넘어야 한다. 대도시에서 내 집 마련은 말 그대로 꿈이 되고 있다. LA나 마이애미의 현실은 집이 사치품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표 참조>

리얼터딧컴의 한나 존스 경제연구 분석가는 “한 지역에서 중간소득 가구가 매물 가운데 50%가량을 살 수 있어야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비율이 매물의



주요 대도시 주택 구매 가능성 지표

(\*권장 최대 주택가격 = 중간소득 가구가 주거비로 연소득의 30% 이하를 지출한다는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도시	구매 가능 매물 비율	중간 가구소득	중간가격 주택 구매 가능 소득	*권장 최대 주택가격
LA	0.5%	91,380달러	227,315달러	276,000달러
리버사이드	6.9%	86,146달러	144,771달러	301,000달러
샌디에이고	1.6%	103,068달러	221,930달러	347,000달러
샌프란시스코	7.3%	133,542달러	353,517달러	448,000달러
마이애미	0.4%	74,274달러	174,162달러	72,000달러
뉴올리언스	2.7%	61,991달러	101,557달러	92,000달러
보스턴	4.8%	109,295달러	198,561달러	349,000달러
뉴욕	4.9%	94,960달러	212,479달러	248,000달러
시애틀	8.3%	113,456달러	206,007달러	399,000달러
포틀랜드	9.8%	94,748달러	141,181달러	345,000달러
댈러스	12.0%	88,783달러	122,114달러	263,000달러
리스비이거스	14.0%	72,504달러	106,117달러	286,000달러
휴스턴	15.3%	78,845달러	100,856달러	236,000달러
피닉스	16.3%	87,718달러	109,960달러	347,000달러
덴버	16.6%	106,833달러	148,054달러	385,000달러
샌안토니오	22.2%	73,281달러	88,001달러	241,000달러
시카고	26.1%	86,627달러	110,461달러	262,000달러
워싱턴DC	30.7%	123,209달러	151,845달러	459,000달러
애틀랜타	31.4%	87,947달러	102,156달러	334,000달러

하면 중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매물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절반도 안 된다. 필라델피아나 샌안토니오, 샬럿처럼 전통적으로 저렴한 도시로 알려진 지역도 이제 대부분이 기준을 밑돈다.

지역을 전국으로 넓혀도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의 75% 이상은 중간소득 가구에게는 구매 불가능한 수준이다. 집 값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간소득 가구가 집을 사는 유일한 길은 매년 적어도 3만3000달러를 더 베는 것이다. 대도시에서 일반적인 주택을 사려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은 기본 조건이다. 지역별 차이는 신축 주택 공급이 되느냐 아니냐다. 남부와 서부 일부 지역은 새로 지은 집이 꾸준히 늘면서 상대적으로 전망이 밝다. 반면 동북부와 중서부는 공급 부족으로 만성적인 매물 부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가주와 마이애미다. 공급 부족은 빈혈 상태에 이른 도시 10곳 중 4곳이 가주에 몰려 있다. 마이애미는 팬데믹 이후 인구가 급증해 콘도와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80% 이상 뛴다.

팬데믹 이후 2020년부터 전국 평균 집값은 50%가량 뛰었다. 대도시가 아니라 전국 평균이다. 이 기간 임금 상승률은 22%였다. 뱅크레이트 조사에서 5명 중 1명은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은 심각한 상황을 잘 드러낸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3분기에도 집값이 올랐다. 50개 대도시에서는 렌트비가 모기지 비용보다 저렴했는데 이는 렌트비가 내려서보다는 모기지 비용이 올라서 일 것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20~30%대로 떨어지면 주택 가격구조와 지역 소득 수준 사이의 조화가 깨진 상태로 볼 수 있다.

뱅크레이트 분석에 따르면, LA와 샌디에이고, 마이애미 같은 고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때들이 50채 중 1채도 되지 않는다. LA와 샌디에이고의 평균 주택가격은 이미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피츠버그와 세인트루이스 같은 러스트벨트와 남부 대도시 일부는 올해에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피츠버그와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여전히 매물 2채 중 1채를 살 수 있다. 디트로이트나 신시내티, 베링햄에서도 5채 중 2채 정도가 중간소득 가구의 구매 가능 범위에 있다.

대상 지역을 전국 34개 대도시로 넓

▶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Matching**  
스페셜 매칭  
초혼, 재혼, 시니어  
에번제이설 함께 평생의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 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 뉴스타부동산

**리스팅 접수**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 \$650,000  
• 공사비(후불) : \$45,000  
• 수리 후 가격 : \$750,000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350 (교재비: \$100)

선택이 즐겁습니다.  
뉴스타에서 함께 시작하세요.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방법 • 기본 컴퓨터 교육

• 학기후 1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 교육과 문제 풀이

파란만 오시면 100% 할인보장!!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벽돌, 마루바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치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1,075,00

# 5불 저축 확산... 집 마련 어려워

고물가·고금리에 소액 적립 열풍  
다운페이 준비에는 턱없이 부족  
전문가 “자동화·고수익 전략 필요”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5달러 지폐 챌린지’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현금으로 받은 5달러 지폐를 골바로 저축하는 방식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집값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방식만으로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티닷컴은 지난 11일 전했다.

금융업체 레이준의 ‘2025 주택구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구매 예정자의 96%가 다운페이 마련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주택소유주들이 다운페이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6년에 달한다.

5달러 챌린지를 통해 하루 5달러씩 저축할 경우 연간 1825달러, 6년간 약 1만950달러가 모인다. 그러나 현 주택 시장을 고려하면 다운페이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11월 기준 평균 주택가격은 41만5000달러로 10% 다운페이를 적용할 경우 약 4만1500달러가 필요하다. 챌린지를 장기간 유지하더라도 필요 금액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5달러 지폐 챌린지가 저축 습관 형성에는 효과적이지만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저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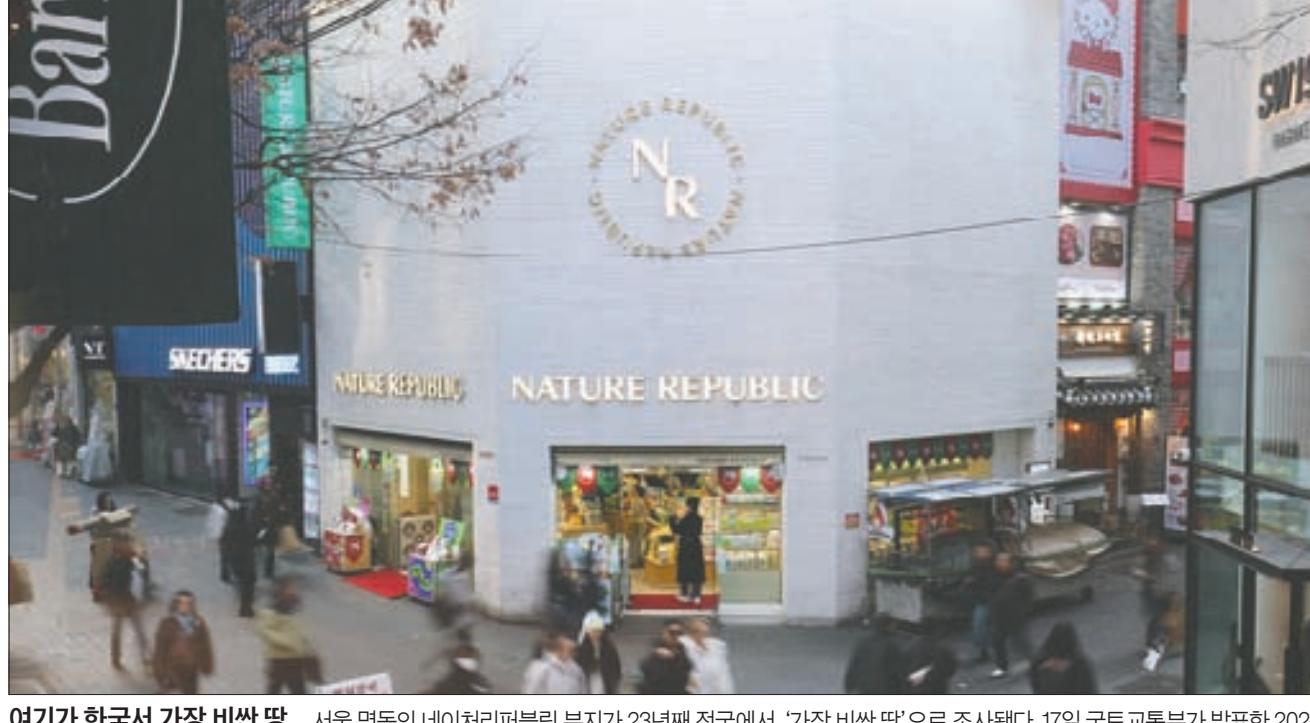
세틴 듀란소이 레이준 최고경영자(CEO)는 “다운페이 자금은 안정성·유

동성·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며 “고금리 예금계좌(HYSA)나 단기 CD를 활용해 정기 자동이체 방식으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고금리 예금계좌의 평균 금리는 약 3.6% 수준이다. 하루 5달러를 적립할 경우 1년 후 발생하는 이자는 약 65.7달러로 추산된다. 금융업계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속적인 저축이 장기 목표 달성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업계는 또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장기 재무 계획의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소액 저축 트렌드 확산은 긍정적이지만 목표 금액 설정·저축 자동화 등 구조적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여기가 한국서 가장 비싼 땅**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3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부지의 내년 공시지가는  $m^2$ 당 1억8840만원으로, 올해보다 4.4% 올랐다.

## 성수동 단독주택 보유세, 내년엔 919만원 낸다

(전용면적 198 $m^2$ )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2.51% 상승  
김윤덕 “주택 추가 공급 늦출수도”

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2.51% 오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내용이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각각 상승한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

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해 통보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3년 이후 3년째 오르고 있다. 서울(4.50%)이 전국 평균(2.51%)을 웃돌았고, 경기(2.48%)·부산(1.96%)·대구(1.52%) 등의 순이다.

서울에선 용산(6.78%)·성동구(6.22%) 공시가격 상승률이 6%대로 지난해 대비(3%대) 배가량 뛰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보다는 보유세 상승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정은혜 기자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m^2$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약 919만원으로 올해 대비 14.2%(103만원) 오른다.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 $m^2$ )은 약 265만원으로 9.1%(20만원) 늘어난다. 우 전문위원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보유세가 100만원 단위까지 오르는 곳이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주택은 몇십만원대로 상승하는 수준”이라며 “단독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보다는 보유세 상승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정은혜 기자

## ‘10·15 무풍지대’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 늘고 가격도 상승

### 집값 규제 전후 거래량 분석하니

**아파트 -62%, 오피스텔 +32%**

10·15 부동산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3종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처로 부각되면서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오피스텔과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15 대책 이전 1만4083건에서 대책 이후 5367건으로 약 6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거래량은 1001건에서 1322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강남구(79건→128건), 마포구(91건→119건), 영등포구(102건→122건) 등 도심권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늘었다. 동대문구(대책 후 82건), 광진구(53건), 서대문구(44건) 등도 거래가 많았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에 해당돼 10·15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6·27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캡투자(전세 끈 매수)가 가능하고, 청약 전매 제한 기간도 1년으로 규제지역 아파트(3년) 대비 짧다.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0월 22일 거래됐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 수를 셀 때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부분을 잘 따져야 한다. 장선영 부동산 R114 책임연구원은 “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 “집 사야 해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은 강제하면서 정작 운용을 개인에게 맡겨두는 건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며 “적립금 증가에 따라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다만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기금형 전환率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2023년에 실적배당률의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을 압도했지만 2022년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은 1.83%, 실적배당률은 -14.2%였다. 수익 추구가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배경이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형(DB)이 214조원(49.7%), 개인이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확정기여형(DC)

이 116조원(26.8%), 개인형 퇴직연금(IPR)이 99조원(23.1%)이었다. DB형 비중이 전년보다 4.0%포인트 감소했고, IPR과 DC형은 각각 3.1%포인트, 0.9%포인트 증가했다. IPR는 가입 인원도 전년 대비 11.7% 늘었는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시)까지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당겨쓴 이도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인출 금액도 3조원으로 12.1% 늘었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주택 구매가 56.5%로 가장 많았다.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만 3만8000명, 1조8000억원에 달했는데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갤럭시부동산

주택 매매 및 렌트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COMING SOON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많이 달라고 연락 올. 2/6 마켓에 올리울 예정 <small>NEW</small>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689,000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치고 1 태운 홈. 경쟁률 높고 득템, Buyer So Happy <small>NEW</small>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편.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틀먼트 원료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피 받아 경쟁시켜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세틀먼트 원료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집 사자마자 주재원 장기 렌트 원료 10/21 세틀먼트 원료 <small>NEW</small>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 이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상글룸
사업체 매매	8220 Crystalwood Heights Dr, McLean, VA		델리삼(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기 철 되는 꽈나 윤도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인정된 수입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율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갈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높을 집 찾고 있는 집 주인 환경	10월~내년 1월 임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바로 입주 가능	\$5,500 집 전체 업그레이드 된 차고 1 태운 홈, 병 3, 회 3+1, 카펫 없음, 롱클로우 증/백클린 고등
McLean, One Park Crest 쿠도	바로 입주 가능	\$4,000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바로 입주 가능	\$2,700 복 2,2, 지정 차고, Springfield ES, Longfellow MS, McLean HS
Centreville, VA	12/20 입주 가능	\$3,2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 태운 홈, 컬린 파밀 초등
6605 Anthony Crest SQ, McLean, VA	12/20 입주 가능	\$4,800 맥클린에서 유망하게 수영장 있는 차고 1, 태운 홈, 4, 회 3+1, 롱클로우 증/백클린 고등
7606 Jervis St, Springfield, VA	1/1 입주 가능	\$3,3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 상글 홈, 교통편리, 방식, 회 2, Nice Owner
Vienna 타이슨스 앤 Amberwood타운 하우스 단지 3채	현재 12/20일 두채는 1/1 입주 가능	\$4,600 집 전체 원룸과 2터운, Greensboro 역, Westbrair 단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집 상태 아주 좋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 교통사고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치료치료 전문인)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럭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앤리웃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변곡점 대비 장기적·전략적 위치 선정 필요

## 12월 자산 시장 리뷰

2025년의 마지막 달에 접어든 지금, 시장은 복잡한 신호들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지수들은 여전히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며 견고한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을 정교하게 들여다보면 투자자 심리, 금리 구조, 실물 경제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면적 가격은 평온하지만 내부에서 균열이 점차 넓어지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 ▶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2025년 내내 기술혁신·AI·생성형 모델·반도체라는 서사를 앞세워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다우지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이어졌던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 재차 접근해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장기간 상승세가 마무리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위치다. 그러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와 심리적 구성 변화다.

최근 몇 달 간 개인투자자 심리를 보여주는 AAII 설문에서 '베어(비관)' 응답 비율이 급격히 감소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심리 개선이 가격 급등 때문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10월 말 이후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여 왔고, 다우는 오히려 고점을 간신히 못한 상태인데도 투자자들은 비판적 전망을 빼르게 겪어내고 다시 낙관 쪽으로 이동했다.

이는 시장이 새로운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 내부에서 위험 신호를 경시하는 심리적 압축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패턴이다.

레버리지 역시 시장의 취약성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지난 10월 뉴욕증권거래소(NYSE) 마진부채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주식을 빚내서 사는 수준을 넘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를 통한 보유량 확대'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일부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식까지 활용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의 장기적 침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고심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도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증시, 낙관 심화될 때 생기는 균열 가시화  
부동산 및 실물경제 둔화 조짐 심화 역력  
금리 방향성 파리, 경기 사이클 말기 우려

상승기에는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키우지만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하급수적인 손실로 돌아오는 이른 바 이중 레버리지 구조의 위험을 품고 있다. 최근 특정 암호화폐 기업 주가 폭락과 대규모 청산 사례는 그러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금리시장

금리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경기 둔화 신호로 인해 단기물 금리는 하향 압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장기물,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 중후반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미국과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다시 한번 '상향 리스크'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괴리는 첫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장기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는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를 유지하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인플레이션이 예전처럼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 구조적 비용 요인이 남아 있어 장기 금리 하락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단기금리는 내려가고 장기금리는 버티거나 오르는 '비정상적 구조'는 경기 사이클 말기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를 반영해 금리가 내리지만, 구조적으로는 과도한 부채와 재정 부담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며 수익률 곡선의 스티

프닝(steepling)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과거 대형 침체 직전에도 나타났던 이 패턴은 지금이 단순한 소프트패치가 아니라 보다 큰 구조 변화 이전의 과도기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 ▶ 부동산·경제

주식시장과는 달리 실물 경제는 이미 둔화 흐름을 확인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을 나타내는 ISM 제조업지수는 9개월 연속 5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부문이 이미 수축 국면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기업 구조조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고용 데이터는 물류·운송·제조업에서 해고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은 구조적 위기에 가깝다. 코로나 이후 원격근무 확산과 사무실 수요 감소로 인해 주요 도시 공실률은 20%를 넘어서고, 샌프란시스코처럼 기술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27%에 이르렀다.

일부는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CRE 시장을 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지만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CRE의 침체

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시장 역시 둔화되고 있다. 전국 도시의 절반 이상에서 집값이 하락 반전했으며 주택 차압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적정 조정'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자산가격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여기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글로벌 수요 둔화를 가속하고 있다. 중국 주요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 가격 하락과 디폴트 위험 증가는 세계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물경제의 냉각은 주식시장에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가격에 점차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실물의 하락은 항상 금융보다 늦게 시작되지만 시작되고 나면 금융가격 조정폭은 더 크고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 결론

2025년 12월 시장은 투자자에게 모순된 듯 보이지만 사실 매우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심리 과열과 레버리지 확대로 인해 취약해졌고, 장기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구조적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실물 경제는 이미 둔화 국면으로 들어갔고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장기 리스크로 고착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지금은 단기 상승을 헤엄을 시도하거나 위험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다.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재조정, 단기채·현금 비중 확대, 테마형 과열 자산의 노출 축소 등 방어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은 지금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압력을 축적하는 말기 국면'에 가까우며, 이러한 시기에는 작은 충격도 예상보다 큰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6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시장 환경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소음을 좇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변곡점을 준비하는 장기적 관점과 전략적 위치 선정이다. 냉정함과 안내심, 그리고 균형 잡힌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의 수익을 결정할 것이다.

肯 최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NVAR Top Producer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FAIRFAX  
REALTY 50/66 LLC



\$1.5M

방5/화4.5/차고3, 1,05 에어컨  
새 지붕, 새 HVAC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화2.5/차고1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아함, 교통편리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700,000

방3, 화2.2, 차고2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홉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703-259-5617, 410-241-2520

##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메이너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ung Kwon)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들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 종교 관심 줄어도 성경 판매 증가

격변의 시기 영적 평화 역할  
올해 1800만 권 판매 돌파

종교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데 성경 판매는 늘고 있다.

시장조사 데이터 분석 회사인 서카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미국 내 성경 판매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9월 한 달에만 240만 권이 판매됐으며, 올해 들어 판매된 성경은 1800만 권을 넘는다.

이는 보수 기독교 운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 직후 일어난 성경 판매 급증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갤럽의 최근 설문에서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49%에 그쳤다.

도서 판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서카나 북스캔'의 브레나 코너 분석가는 "미국의 성경 판매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22년부터는 해마다 전례 없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은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2025년은 이 기록을 또다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은 영어표준역(ESV) 보급판이며 아동용 '어드벤처 바이블'도 인기다. 분홍색 대활자의 킹제임스(KJV) 선물용 성경 역시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성경 판매가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 성경 유튜버 팀 와일드스미스는 팬데믹과 정치 양극화 등 지난 5년간 계속



바티칸이 교리 문헌을 통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임을 분명히 했다.

된 사회적 격변 속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을 무언가와 영적인 평화를 찾으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디자인과 구성도 성경 판매를 늘렸다. 읽기 쉬운 판본을 선호하는 초신자에게는 가독성이 높은 새번역 성경(NLT)이 인기다. 틴데일 출판사가 출시한 필라멘트 앱과 연동되는 성경은 젊은 독자들이 선호한다. 또 부피가 큰 성경을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틴데일의 에이미 심슨 성경 출판 책임자는 성경을 수백 종으로 다양화한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판매가 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퍼콜린스 크리스천 출판 부문에 따르면 성경은 구성과 상관없이 모두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성경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40년 역사의 NIV 스터디 성경은 최근 누적 판매량 1000만 부를 돌파했다. 출판사는 Z세대를 겨냥한 '예수 성경(The Jesus Bible)'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점을 들어 젊은 세대의 신앙에 대한 관심 증가가 성경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와일드스미스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성경 판매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보고 유튜브에서 성경 리뷰를 시작했다. 첫 번째 리뷰로 조회수 1만8000회를 기록한 그는 현재 팔로워 25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성경 유튜버가 직업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성경 붐은 내 인생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안유희 객원기자

## 유럽서 기독교인 종교 표현 억압 증가

신앙 연관 법적 기소 늘어  
지난해 증오범죄 2211건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인의 종교적 표현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7일 공개된 '유럽 기독교인 차별·불관용 감시기구(OIDAC)' 연례 보고서는 기독교인이 단순히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연합 기본권 협약 제10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OIDAC는 유럽 곳곳에서 기독교 신앙이 연관된 고위험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낙태시설 주변 150m 이내

를 벼파존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조용히 기도한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스페인은 공식적인 벼파존은 없지만 2022년 이후 낙태 클리닉 인근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20명 이상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됐다. 네덜란드에서도 기독교 생명운동 단체 '키에스 레반' 회원들이 클리닉 밖에서 평화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다 구금되기도 했다.

OIDAC는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자유와 기본적 표현의 권리를 축소하는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부모권과 교육 분야에서도 종교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에서는 한 복음주의 기독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

는 것을 법원이 금지했다. 스위스 로잔 연방법원은 "공립교육의 교과 종립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가톨릭 여자학교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시켰다. OIDAC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세속적 교육 모델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종교적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불관용과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프랑스와 영국, 독일, 스페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 전역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기록한 반기독교 증오 범죄는 모두 2211건이었다. 2023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개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가 하는 말은 결국 타인의 언어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구조주의 사상

사회에 맞는 교육 받고 성장

사고와 행동 지배당하면서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소쉬르는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의미, 기능은 그 사물이 포함한 관계 망 또는 시스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차후에 결정된다는 것으로, 사물 자체에 생득적이거나 본질적인 어떤 성질이나 의미가 내재하여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어떤 관념이 먼저 존재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붙으면서 어떤 관념이 우리의 사고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즉, 어떤 사물에 쓰이지 않는 새로운 기표를 붙여주고, 그것이 기의를 가지면서 그 사물에 이름이 생기는 것이다. 즉, 기표가 먼저 생기고 기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은 그 사회의 구조 속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생명체가 아니라 태어난 후에 부모가 이름을 지워주고 그것을 불러줌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생기는 것이다. 역시, 구조주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사람은 그 사회에 맞는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에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고, 사고와 행동도 그 사회의 질서와 문화에 지배당하게 된다. 이것이 구조주의의 맹점이자 필연이다.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말을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타인의 언어라는 것이다. 자크 라캉은 상징계는 언어를 익히면서 진입하며, 언어의 지배를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한다. 다분히 소쉬르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령, 누군가에게 확신을 두고 말을 술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문장이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것이다. 마치 앵무새가 사람이 한 말의 모든 뜻을 이해하고, 지껄이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면서도 이 의무에 충실했고, 그 의무를 위해 자신의 운명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보았다. 언어학자인 소쉬르의 구조주의가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사상으로 될 줄, 소쉬르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아 중심주의 사상에서는 경험의란 내가 외부에 나가서 이런 저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표현이란 나 자신의 내부에 담겨있는 생각을 이런저런 매개체를 경유해서 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길 원하겠지만, 구조주의에서는 자신이 아닌 사회의 질서와 구조 속에서 타인의 사상과 말을 그저 자신이 전달하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① 중앙일보 구독신청 : 703-281-9660

##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 주택리스팅 받습니다!

###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 MD Ellicott City

###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43-759-9798

#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셀러의 희소식

집 예쁘게 고쳐서 팔아드립니다.  
최선의 가격, 공사비는 크로징에서!  
비싸게 엉뚱한거 고쳐고,  
바가지 공사비에 억울해 마시고 지금 전화 주세요.

## 바이어 희소식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자금으로 활용하실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 임대 주택 관리

매릴랜드, DC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민스팩션, 래드 민스팩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 RENT

타운 홈, 센터빌  
차고2, 방4, 화3,  
즉시 입주

\$3,300

타운 홈, 센터빌  
차고2, 방4, 화3,  
즉시 입주

\$3,550

### 급매



스파포드 싱글홈  
방4, 화3, 넓고 환하고 올수리

\$55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랜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매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 부동산 가이드

케니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

## 주거용과 투자용 양도소득세 비교

임대 후 마지막 1년만 거주해도  
최대 50만불까지 양도 소득 공제

부동산은 크게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과 임대 수입이 창출되는 투자용 부동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아파트, 상가, 창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의미는 최근 5년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2년을 거주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2년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처음 1년 거주 후 3년 동안 임대 했다가 다시 마지막 1년을 거주 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 후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양도소득의 50만불 까지 공제 가능하며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 각각 25만불 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부부가 5년전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 후 처음 1년 거주 후 중간 2년을 임대를 주었다가 나중 2년은 자신들이 다시 거주하다 팔았을 경우 최고 50만불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5년전 60만에 사서 100만에 팔았다면 이 부부는 40만의 소득에 대해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는 좀 다르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매 후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혜택이 없다. 그러

므로 많은 셀러들이 사용하는 것이 1031 교환(Exchange) 인데 이는 양도 소득세를 연기(Defer) 시키는 것이다.

IR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을 팔고 45일 내내 새로 사야 할 매물을 정하고 180일안에 정한 매물 구입을 끝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3개까지 정할 수 있으며 매매 물건에서 나온 금액이 매입한 물건으로 재 투자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1031 교환(Exchange)을 할 경우 매입 가격이 같거나 더 높은 것을 사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뺏거나 새로 산 매물의 융자 금액이 줄어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융자가 100만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300만에 팔고 280만짜리 가격이 적은 다른 아파트로 1031 교환(Exchange)을 할 경우 융자 100만을 갚고 나면 200만이 남게 된다.

여기서 남은 200만이 전부 새로 사는 매물에 투자 되어야 하므로 새로 매입한 매물의 융자는 80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가격이 더 적은 매물을 구입하면서 줄어든 융자 20만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파는 매물에서 매년 감가상각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세금이 추가로 발생 할 수도 있다.

## 부동산 이야기

미셸 정  
뉴스타부동산 LA 경영부사장

## 시민권 없이 부동산 구매

크레딧 스코어 없어도 집 구입 가능  
투자용 융자 DSCR 프로그램 활용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고들 얘기한다. 내년엔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매년 힘들다는 말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바쁜 사람은 항상 바쁘게 보이며, 없는 사람은 모자라서 힘들고, 있는 사람 역시 더 없다고 불평한다. 미국 생활은 다름쥐 헷케워처럼 정신없이 돌아가고,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고정 페이먼트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제법 잘 짜여진 생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의·식·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민 생활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충분히 쉬어야 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내 집 장만이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도 가능하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강남 아파트의 경우 90억, 100억짜리도 흔하고 전세만 해도 20억이 넘어가는 고급 아파트들이 있다.

지방 아파트의 경우 3~4억도 가능하지만, 그런 가격대에 비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살 만한 가격대가 많고, 외국인 융자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보통 30~4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는데, 융자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첫째,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도 크레딧 리포트가 뜨지 않는 경우, 즉 신용 점수가 전혀 없어도 소득 대비 PITI로 감당할 수 있으면 승인되는 프

로그램이 있다. (P-Principle 원금, I-Interest 이자, T-Tax 텍스, I-Insurance 보험) 은행은 월 소득 대비 PITI 비율로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즉 신용 점수가 없어도 소득 증명이 가능하면 융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프로그램이 있다. DSCR = NOI / Debt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1.0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DSCR은 주택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용 (NOO - Non Owner Occupied) 융자이며, 이 역시 크레딧 점수가 없어도 가능하다. 요즘은 금리나 조건이 예전보다 좋아졌고 일부 프로그램은 재융자나 캐시 아웃도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싱글의 경우 세금도 많이 내지만 마땅히 공제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내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와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된 이자는 Itemized Deduction 시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세금 공제도 도움이 되지만 또한 매달 원금이 조금씩 깊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렌트비로 내면 사라지는 돈이 집을 통해서는 조금씩 쌓여자산이 된다.

물론 세금 혜택만 보고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가족이든 싱글이든 내 집 장만 후 아파트 렌트비 낸다고 생각하며 모기지 페이먼트를 꾸준히 내다보면 집값도 오르고 나아 들어 퇴직 후에도 편안하게 머물 곳이 있어 든든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진단은 냉정하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가 여는 미래는 미국과 중국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서 있는가. 현대차그룹의 고민과 최근 내용은 이 질문에 답을 드리낸다.

정의선 회장은 일찍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이 미래 경쟁우위의 핵심임을 간파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내걸고, 네이버 출신 송창현 대표에게 사장 직함과 권한을 부여하며 체질 전환을 시도했다. 최근 송 사장의 사임은 기술보다 깊은 '문화 장벽'이 실험을 가로막았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추격은 거칠 것이 없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제조 노하우를 흡수했고, 배터리와 라이다 센서 공급망이라는 강점 위에 공산당식 '선 생존, 후 규제' 모델을 얹었다. 경쟁을 통과한 기업들은 하드웨어

## 이수화의 마켓 나우

## 문화가 기술을 앞서야 현대차가 이긴다

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강력한 주자로 세계 시장을 넘본다.

현대차 상황은 피처폰 시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떠올리게 한다. 제조 경쟁력은 뛰어났지만, 운영체제와 생태계 전쟁에서는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테슬라가 소수 차종에 자원을 집중해 자율주행을 고도화하는 동안, 현대차는 수십 개 차종과 복잡한 옵션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묶여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에 분명히 불리하다.

소프트웨어 연구자로서 필자는 이 상황을 '본질적 세계관의 충돌'이라 부르고 싶다. 기계공학의 세계는 'F=ma' 같은 물리 법칙이 지배한다. 여기서는 오차를 줄이는 것이 곧 선(善)이며, 시행착오는 비용이자 실패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실체 없는 '생각'에서 출발해 현실을 지배하려는 시도다.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며, 애자일

(agile) 방식은 단순한 개발 기법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조직 개편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의 DNA가, 시행착오를 먹고 자라는 소프트웨어 문화를 끌어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이 위협적인 이유도 기술보다, 소프트웨어적 사고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체계를 이미 구축했기 때문이다.

기계 위에 AI를 덧붙이는 '애드온(add-on)' 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다. 그 실패를 데이터로 축적해 다시 사고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 장벽은 자본이 아니라 철학이 넘는다. 소프트웨어 중심적 리더십이 하드웨어를 이끌 때, 현대차와 한국 산업은 비로소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



##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 추천 투례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 RENT

Gaithersburg  
월 \$3,300

타운홈

## RENT

Jessup  
월 \$2,800

타운홈

## RENT

Ellicott City  
월 \$2,750

타운홈

## RENT

Pasadena  
월 \$2,600

타운홈

## RENT

Columbia  
월 \$1,500

싱글홈 (반지하)

방2, 화2

타운홈

방4, 화2

방3, 화3

방3, 화2.2

방3, 화2.5

방3, 화2

방3, 화2/2

방2

방2

#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WBS**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 김하성 애틀랜타 남는다

1년 총액 2000만불 계약  
시즌 후 FA 재도전 예상

김하성(30)이 2026시즌 원소속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뛴다.

MLB닷컴은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김하성이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와 계약기간 1년, 총액 200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며 MLB에 입성한 김하성은 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텁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900만달러에 계약하면서 2025시즌 뒤 옵트아웃(계약 폐기 권한) 조항을 넣었다.

오른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부상 탓에 2025시즌 중반 복귀한 김하성은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MLB닷컴은 김하성이 브레이브스와 1년 200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Rick Osentoski-Imagn Images-로이터]

그는 지난 9월 텁파베이에서 방출된 뒤 유격수 자원이 필요했던 애틀랜타에 합류했다. 김하성은 이적 후 예전의 기량을 회복했다. 타율 0.234, 5홈런 17타점의 성적으로 2025시즌을 마무리 했다. 애틀랜타에서 뛴 24경기에선 타율 0.253, 3홈런, 12타점으로 활약했다.

정규시즌을 마무리한 김하성은 애틀랜타 잔류와 옵트아웃 행사를 두고 고민하다가 2026시즌 연봉 1600만달러 옵션 대신 옵트아웃을 선택했다.

시장 상황을 검토한 뒤 연봉 1600만 달러보다 낮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겨울 MLB FA 시장에 특급 유격수가 나오지 않아 애틀랜타 등 많은 구단이 유격수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했다.

MLB닷컴은 FA 시장 개장을 앞두고 김하성이 연평균 2000만달러 이상의 다년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하성은 바랐던 장기계약을 하진 못했다.

김하성은 건강한 몸으로 건재를 과시한 뒤 2026시즌 FA에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1년 총액 2000만불 계약  
시즌 후 FA 재도전 예상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사진)가 타이거 우즈에 이어 두 번째로 4년 연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PGA 투어는 15일 올해의 선수에게 주는 짱 니클라우스 어워드 수상자로 세플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세플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했다.

1990년 창설된 짱 니클라우스 어워드에서 4연속 수상 기록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수상한 우즈에 이어 두 번째다.

세플러는 올 시즌 최고의 성적을 냈다. 그는 손바닥 부상으로 2025시즌을 지각 출발했으나 20개 출전 대회 중 6개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담으며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NBA ‘슈퍼루키’ 플래그  
18세 최초 40득점 기록

미국프로농구(NBA) ‘1순위 신인’ 쿠퍼 플래그(델러스 매버릭스·사진)가 18세 선수로는 최초로 한 경기 40점 대 득점을 올렸으나 팀의 패배는 막지 못했다.



플래그는 1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델타 센터에서 열린 유타 재즈와의 2025-2026 NBA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42득점을 폭발하고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6개를 곁들여 맹활약했다.

플래그는 미국 출신 백인으로는 1977년 마이클 켄트 벤슨 이후 48년 만에 드래프트 1순위를 차지한 선수로, ‘제2의 래리 버드’로도 불리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팀이 연장전 끝에 유타에 133-140으로 지면서 플래그는 신기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 ‘커쇼 시대’ 다저스 올스타에 류현진 4선발

### MLB닷컴 분석

2선발 그雷인키·3선발 불러  
유격수 시거·우익수 벨린저  
지명타자 오타니, 2루수 베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이 ‘커쇼 시대’ 다저스 올스타에 4선발로 뽑혔다.

MLB닷컴은 15일 “클레이턴 커쇼(37)가 활약한 2008~2025년, LA다저스는 눈부신 재능을 가진 선수를 많이 배출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커쇼 시대’라고 부른다”며 “커쇼가 다저스에서 뛴 기간, 최고의 시즌을 보낸 선수들로 커쇼 시대 다저스 올스타를 뽑았다”고 전했다.

커쇼는 2006년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다저스에 입단해 2008년 빅리그에 데뷔했다. 올해까지 커쇼는 MLB 통산 455경기에 등판해 223승 96패, 평균자책점 2.53, 3천52탈삼진을 기록했다.

2025년에도 11승 2패, 평균자책점 3.36으로 잘 던졌지만, 커쇼는 은퇴를 선언했다.

여러 매체가 커쇼의 은퇴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리고 있다.



2019년 디비전시리즈 개막을 앞두고 열린 다저스 훈련에서 류현진과 커쇼가 함께 더그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MLB닷컴은 ‘커쇼 시대’ 다저스 올스타 선발 라인업으로는 2024년의 오타니 쇼헤이(지명타자), 2023년의 무키 베츠(2루수), 2019년의 코디 벨린저(우익수), 2011년의 맷 캠프(중견수), 2023년의 프레디 프리먼(1루수), 2017년의 저스틴 터너(3루수), 2016년의 코리 시거(유격수), 2024년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좌익수), 2025년의 월 스미스(포수)를 선정했다.

커쇼는 2006년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다저스에 입단해 2008년 빅리그에 데뷔했다. 올해까지 커쇼는 MLB 통산 455경기에 등판해 223승 96패, 평균자책점 2.53, 3천52탈삼진을 기록했다.

커쇼는 3번이나 내셔널리그(NL) 사

이영상(2011, 2013, 2014년)을 수상했

다. 2014년에는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도 누렸다.

MLB닷컴은 “커쇼는 당연히 ‘커쇼 시대 1선발’이어야 한다. 커쇼는 여러 번 역사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MVP를 수상한 2014시즌을 선택했다”고 설명 했다.

커쇼 시대에는 커쇼와 함께 뛴 또 다른 에이스가 있었다. 류현진도 MLB닷

컴이 인정한 ‘커쇼 시대의 에이스’다. 류현진은 2013~2023년 MLB에서 뛰며 186경기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7을 올렸다. 디저스에서는 2013~2019년, 126경기 54승 33패, 1세이브, 2.98로 호투했다.

다저스 시절 류현진 최고의 시즌은 2019년이었다. 그해 류현진은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WAR) 5.1을 찍었다. 평균자책점은 MLB 전체 1위였고, NL 사이영상 투표에서는 제이컵 디그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야마모토도 올해 12승 8패, 평균자책점 2.49, WAR 4.9로 활약했지만, MLB닷컴은 2019년의 류현진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MLB닷컴은 ‘커쇼 시대’ 다저스 올스타 선발 라인업으로는 2024년의 오타니 쇼헤이(지명타자), 2023년의 무키 베츠(2루수), 2019년의 코디 벨린저(우익수), 2011년의 맷 캠프(중견수), 2023년의 프레디 프리먼(1루수), 2017년의 저스틴 터너(3루수), 2016년의 코리 시거(유격수), 2024년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좌익수), 2025년의 월 스미스(포수)를 선정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 Jim &amp;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Mark: I got an e-mail from one of my old high school buddies today.

마크: 옛날 고등학교 친구한테 오늘 이메일을 받았어.

Erin: Is that good or bad?

에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Mark: It's good. I haven't heard from him for a long time.

마크: 좋은 거지.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거든.

Erin: I've been out of touch with my high school classmates.

에린: 난 고등학교 동창들과 소식이 끊겼어

Mark: I've got two or three others that keep me posted about what they're doing.

마크: 난 계속 안부 주고받는 친구는 두 세 명돼.

Erin: It's been hard for me to keep in touch with my classmates.

에린: 난 동창들과 연락 주고 받는 게 어렵던데.

Mark: I guess we all get so involved in our lives -

마크: 전부 자기 사는 일에 바쁘니까~

Erin: So it's easy to drift apart.

에린: 그래서 쉽사리 서로 멀어지는 거지.

Mark: Well don't feel too bad about it. You've got a lot of friends.

마크: 그렇다고 기분 상하지는 마. 너 친구 많잖아.

Erin: I know but you are lucky.

에린: 그건 그렇지만 네가 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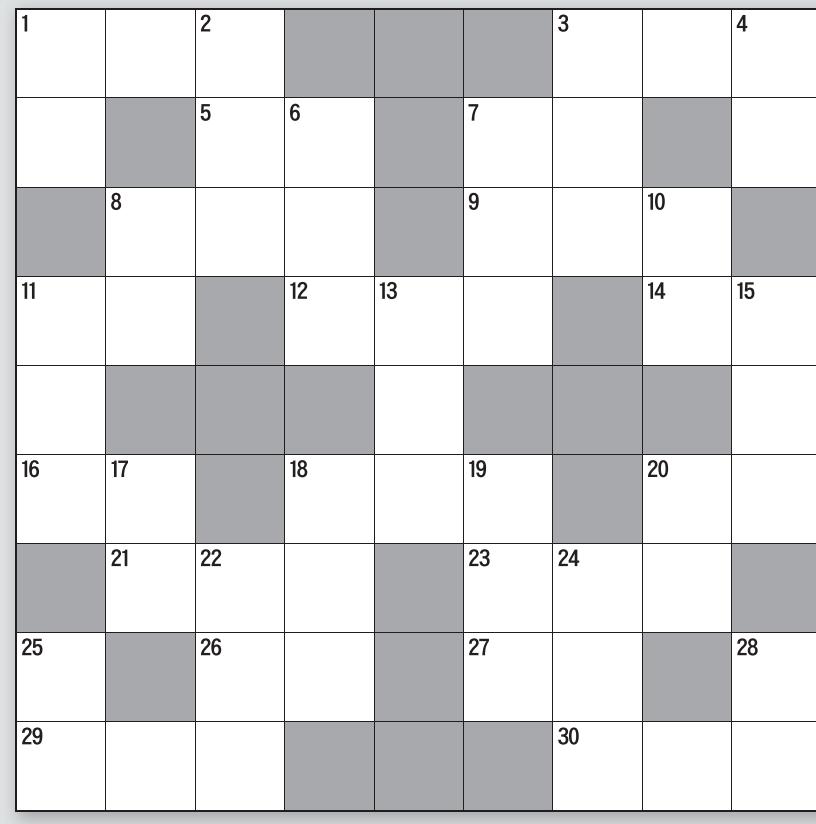
## 기억할만한 표현

▶ out of touch with (someone): ('누구와) 소식이 끊기다.

"She's been out of touch with her parents for six months." (그녀는 부모와 소식이 끊긴지 5개월이 됐어.)

▶ keep in touch with (someone): 연락을 주고 받다

## 날마다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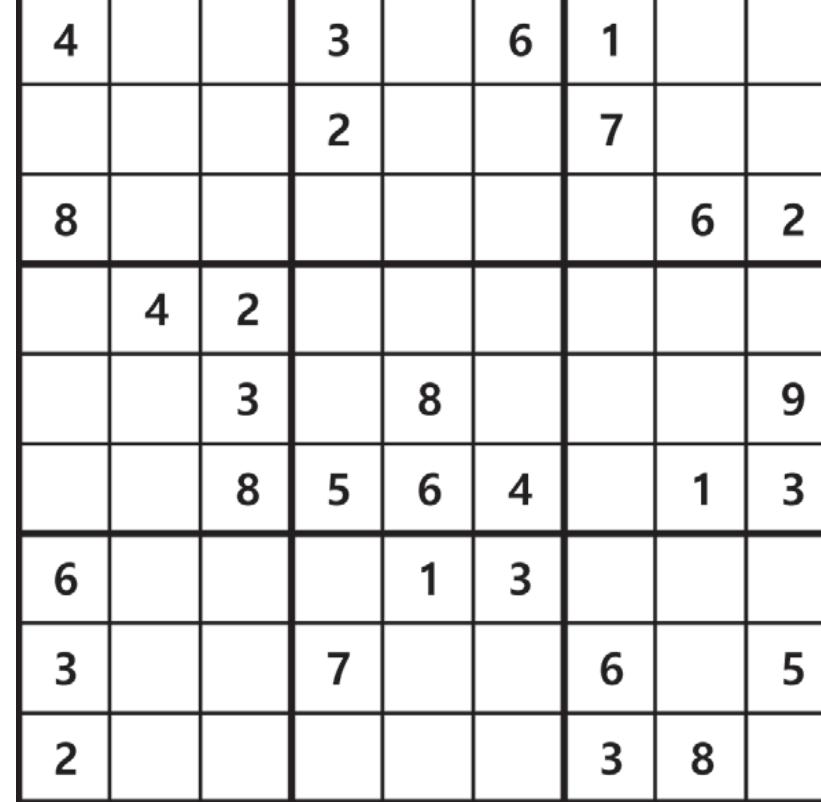
## 가로열쇠

(1) 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 있는 국물 이외의 것 (3)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뛰어내릴 때 꼭 있어야 하죠 (5) 사람의 죽음을 알립 (7) 개골장 물이 흘러 나가도록 길게 판 내 (8) 높은 온도에서 달군 금속 재료를 물에 넣어 급격하게 식히는 일 (9) 섬성. 마음보 (11) 살이 째서 뚱뚱한 사람 (12) 닭의 새끼 (14) 옥살이를 하는 고생. ~를 치르다 (16) 다듬이나 버금. 맏이 이외의 자식들. 아니 맏자식만 자식이고 ~는 어디 자식 아니란 법도 있나 (18) 모르는 사람과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성과 이름을 서로에게 알려 줌 (20) 육십갑자가 같다는 뜻으로, 같은 나이를 이르는 말.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야 (21) 날마다 또는 늘 있는 일. 예사일 (23)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 ~가문의 자손 (26) 투명한 석영. 불순물이 섞임에 따라 자색이나 검은색 따위의 색깔을 띠게 된다. 장식품이나 광학용 기계에 쓰인다. 크리스탈 (27) 끝데없이 말수가 많음 (29)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도 (30) 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장국이나 미역국 따위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 세로열쇠

(1) 서로의 건강이나 행복을 빌면서 함께 술을 마시죠 (2)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돋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 (3)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 (4) 산에서 나는 나물. ~비빔밥 (6) 고치기 어려운 병 (7)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조리 없고 당치 않은 말. 이 녀석이 지금 무슨 ~하고 있는 거야? (8) 채무를 일정기한 안에 확실히 갚도록 보장하는 법적 수단이죠 (10) 큰 죄를 짓고 죽으면 이곳에 가서 벌을 받지요 (11)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 땅속줄기는 감자 모양이며, 땅이줄기는 사료나 알코올의 원료로 쓰인다. 데지감자. 그 무슨 ~처럼 난데없는 소리니? (13) 여럿이 함께 기세를 올려 악을 쓰며 부르짖는 소리 (15) 늙은 부모를 산속의 구덩이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풍습 (17) 헛별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18) 떠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19) 종이나 활을 매우 잘 쏘는 사람 (20) 첫째가는 큰 부자 (22) 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비 (24) 거의 모두 다 (25) 가장 굽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28) 흥부에게 박 씨를 몰아주었죠

##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① 워싱턴 중앙일보

##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출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 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난 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1월 30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2026년도 오바마케어 신청은 공인 에이전트와 함께 하세요!  
내년도 오바마케어에는 플랜 조건과 보조금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정확한 플랜 선택을 위해, 공인 에이전트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하셔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20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센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꽈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 곽민우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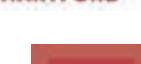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2월 겨울맞이  
Special SALE

An advertisement for the Pulmuone Kimchi Fridge 120L. The top half features a large red banner with the text '풀무원 김치 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Pulmuone Kimchi Fridge Launching Sale!). Below the banner, a smaller text reads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른먹거리를 담는 바른 솔루션'. The main product image shows a sleek, modern stainless steel refrigerator standing in a kitchen. A small circular badge on the bottom left corner of the image says '3년' (3 years). To the right of the refrigerator, a speech bubble contains a megaphone icon and the text 'SPECIAL OFFER'. Next to it is a large red price tag '\$999' with a red arrow pointing towards it. The original price '\$1,399' is crossed out above the new price. The bottom half of the ad contains promotional text in Korean, including '간편마다 맛있게' (Conveniently delicious), '풀무원 인버터 블리프시스템' (Pulmuone Inverter Bleep System), and '설치설정과 배송비, 설치, 정기점검료 및 고장비를 외하고 편의기기 부수 조건별로 저렴하게' (No installation fees, delivery fees, setup fees, maintenance fees, or repair fees, except for convenience equipment usage fees). It also highlights '설치설정과 배송비, 설치, 정기점검료 및 고장비를 외하고 편의기기 부수 조건별로 저렴하게' (No installation fees, delivery fees, setup fees, maintenance fees, or repair fees, except for convenience equipment usage fees). On the right side, there's a photograph of the refrigerator's interior showing various compartments filled with food. Below this, a section titled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6가지 맞춤 보관 모드' (6 different storage modes according to needs) shows six small images of the refrigerator's interior in different configurations.

**STEAMBOY**

# 스팀보이 카본 온수매트

**SPECIAL OFFER**

상급  
\$340 → **\$300**

**버지니아 워싱턴 월дин 지정 대리점**

# 월дин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하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토헬스 반신욕기

~~\$1,499~~ **\$999 +tax**

건식 반신욕기

질찬리 판매중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채우고 피로를 푸세요~

12월

구

인

광

고

##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지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会社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http://www.onnaturalusa.com)

#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터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 매매

## 확실한 순익보장 렬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 메디케어

전문기 · 정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mailto: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색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메릴랜드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게이더스버그소재)에서 주일 1부 예배를 섬겨주실 반주자 한 분을 모십니다.  
-예배시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연습시간 오전 7시 20분 및 예배)\*일년에 두 차례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를 간 반주하여 애함  
-지원자격: 세례교인으로 교회 반주에 은사와 사명감이 있는 분(성가 및 복음성가)  
-제출서류: 이력서 및 신앙고백이 담긴 간단한 자기소개서  
-제출처: BPC.Music.Dept@gmail.com  
-제출기한: 청빙시까지  
-사례비: 교회 내규에 따름(추후통보,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 이민형 장로: 216-870-9234  
이메일: leeminhung7896@gmail.com  
김요한 목사: 301-215-0065  
이메일: shalom1984@gmail.com  
-교회주소: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 301-670-1200  
<http://bethanyusa.org/>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온니 거주 환영)  
주방보조  
▶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한우,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라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 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 443-828-7777

### 세탁/이미용/기타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콜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트타임  
443-262-1813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6am ~ 2pm) \$18/hr + tips  
703-785-8763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터 리퀴스토어 라리리스탁 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 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코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 443-420-3096

영어 가능한 텔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 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 분들 모십니다.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라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2023 Little River Tpk #409  
Annandale, VA 22003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2023 Little River Tpk #409  
Annandale, VA 22003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 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 기운영, 널상호,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 싱글/타운 방 렌트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홈 이  
층 방 렌트, 가구 일체, 워크 아웃, 인터넷 유  
포, 남자 직장인 구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 지하, 방 2, 옥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치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 홈 방 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홈 2층 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 분 \$700

240-393-3615 (문자 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방 하나 렌트 합니다.  
옥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 3, 화 3.5, 10 월 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 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 2, 부엌, 옥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 홈 방 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입구,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싱글 홈 이층 방 렌트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 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 사업체 매매

1. 나이트 클럽, 주 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티, 최고로 케이션 5,000 sf

2. 성업 중인 “명품 개장” 식당 2nd & 3rd  
Location 투자자 모집, 좋은 lease space  
확보

3. DC NW 주 5일 Cafe Deli 7~4pm, 7만

▶ 703-303-8003

1. 멜리 카페 1,400sf & 패어팩스

렌트 \$2,500, 5만 5천불

2. 치킨 프렌차이즈 95만불, 주 매상 3만

3. 일식점, GMU 근처 20만불

주 매상 1만 5천, 넉넉한 파킹

▶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팩업, 주 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렌차이즈 3곳, VA, MD

4. 콩후티, Bakery 등 리스팅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텔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 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확실한 순익 보장 멀리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주 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는 건물, 주 5일(6am ~ 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 버지니아 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소에서 풀타임 직원 찾습니다.  
성실하신 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다.

이중 언어자 환영

▶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MA) 채용합니다.

▶ 240-232-5989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중앙일보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센터빌, 챔플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챔플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티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i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마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콘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  
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 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렐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jang.sterling@gmail.com

정보인터넷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 571-991-4172

##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바샵에서 함께 일하실  
비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 분  
703-473-9771

##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티임 카운터 보설분  
풀/파티임 얼터레이션 하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 분  
703-328-3064

##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 기타 구인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 571-591-4455

##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마루, 넓은 데크,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집, 교통편리,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 층 데크, 카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픽업 쇼핑몰 인근, 교통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카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자,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편리  
▶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홈 렌트 \$3,300  
방4, 화3, 카고 2, 즉시 입주 가능  
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550  
방4, 화3, 카고 2, 즉시 입주 가능  
▶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2.5, 카고 2, 앤드 유닛  
▶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 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리모델링, 개/고양이 가능, 12월 11일 입주, 단기 렌트도 가능  
571-345-6667

GMU 대학 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트합니다. (웃수 하이 학군)  
방4, 화2.5, 카고 2, 교통 편리 (조지메이슨 1 마일, 패어팩스 H마트 1.3마일)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 \$3,600  
▶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 렌트  
\$2,400, 방3, 화장실 3.5, 업그레이드된 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우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2,900  
로빈슨 하이스쿨 근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3.5,  
703-470-1736 / 703-470-7066

##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콘도 \$1,500  
방1, 화장실 1,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넓은 콘도, 업데이트된 부엌, 계단 없는 1층 나무가 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콘도 \$2,600  
방2, 화장실 1, 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 탁트인 조망, 엘리베이터, \$100,000 가량 수리하고 업데이트한 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트,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콘도 \$1,700  
방1, 화장실 1, 앤드 유닛 880sf, 넓고 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 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카고 1, 이노베이션 매트로 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 571-239-6054

## 방 렌트

애난데일 도서관 옆 큰 싱글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렌트합니다  
유포, \$1,000,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350-1986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 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이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만 주무실 분  
703-732-1246

챈들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사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로튼 (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 가 1층 같은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이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식당 1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네너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원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한 취사, 가구원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린 큰 방이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 요망)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  
가구 암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트 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편찮으신 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 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과 완전분리) 렌트 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 데크, 큰 창고, 카고 2개, 넓은 뒷마당, 395/495/955번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 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 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스태포드 싱글홈 \$550,000

방4, 화3, 넓고 환한, 올수리  
▶ 703-863-0321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카고 2, 교통 편리  
▶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 703-622-0312

센터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 full bath, 워크 아웃, 브레డ/28, 66, 29 교통요지, 2017 리모델링,  
▶ 517-239-6054

## 정크 빨리빨리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치고 1  
2. 센터빌 타운 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치고 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챈틸리 금마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 703-231-5572

애쉬번타운 하우스 \$660,000  
방4, 화3.5, 치고 2, 최고 학군, rt267/7, 델  
레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 571-239-6054

스프링필드 타운 하우스 \$710,000  
방3, 화3.5, 치고 1,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폴인트, 새 덱, 워크아웃 베이스  
먼트, 최근 에어컨, 히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 703-813-8949

Dumfries 타운홈 \$469,900  
2006년 새단지, 방3, 화3.5, 치고 2  
업데이트 (에어컨, 히팅, 냉장고, 세탁기, 건조  
기) As is condition으로 싸게 나온집  
▶ 703-813-8949

엘리컷 시티 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치고 2  
▶ 301-318-4242/443-668-0453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치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3. Elkri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치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치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5. 엘리컷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치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치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치고 2, 우수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 703-899-8999

1. 덤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앞  
▶ 703-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치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청장, 스파 욕  
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71-239-6054

## 사업체 매매

1. 나이트 클럽, 주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터,  
최고로 케이션 5,000 sf  
2. 성업 중인 "명품 계정" 식당 2nd & 3rd  
Location 투자자 모집, 좋은 lease space  
확보  
3. DC NW 주 5일 Cafe Deli 7~4pm, 7만  
▶ 703-303-8003

애남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매개니샵  
치고 2개, 서비스 베이 높습니다. 주차 공간 충  
분, 즉시 운영 가능, 퍼밋 유통권, 1백 10만불  
▶ 703-928-5990

1. 멜리/카페 1,400sf & 패어팩스  
렌트 \$2,500, 5만5천불  
2.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3. 일식점,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텔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확실한 순익 보장 멀리 매매  
DCS 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  
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 건물, 주 5일 (6am ~ 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 (문자)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 용  
▶ 703-625-9909

## 증고 매매 / 기타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출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 된  
쿨러 밴, 치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 시티, 럭비,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리 흥,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  
니다.  
703-966-9072 (Mr.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 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애디션, 덱, 팬스, 지붕  
제니얼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 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스페인팅 (In, Out), 텍 메이터너스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 건축  
빌딩 사설 관리 전문 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 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내년도 메디케  
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온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  
택 / 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 융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융자 25년 경력 매입 / 재융자 / 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융자 주택 / 상업융자 / 재정 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자  
▶ 202-774-6554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  
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 / 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터 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 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 703-910-0400

## 냉동 / 히팅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캐리어  
장비 수리, Ice Maker, 펌프,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쿨러, 워터 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 (가정용 / 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펌프,  
워킹 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길 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 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H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가용 /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  
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스  
팀 스파,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 703-967-4155

## 플러밍

SK

###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치

AWARDED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태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여행이사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http://www.vapumyang.com) / [va.pumyang.com](http://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mailto: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33-203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0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태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http://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mailto: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귀국이삿짐**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 타주이사**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mailto: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성판권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 톡

**소 톡**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세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긍정 수리 상담

410-480-2477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http://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http://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http://joytechhvac.com)

##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http://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http://www.bbgbblinds.com) bbgbblinds@gmail.com

## H.P.C 집수리센터

집안팎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703.499.5984**

## 홈스 플러밍 켄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썬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보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 블라인드 / 틴트

##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유파이낸셜그룹**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유파이낸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 선물 1 “내년도 메디케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9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ANOC 편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가지고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년도 혜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유파이낸셜**이 정성으로 도와드립니다



## 선물 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은퇴는 다가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이 없거나 충분히 성장하지 않죠?  
이번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보세요.  
집안과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 이제는 살아서 성장하는 자산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유파이낸셜** 그룹입니다.

## 선물 3 “혹시 모를 사고, 준비되셨나요?”

미국에서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지만 현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력해서 모은 것을 한 번에 잃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누가 대신 병원비를 내줄까요?  
장기간호가 필요할 때 누가 나를 간호해줄까요?  
지금 준비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파이낸셜**이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파이낸셜 그룹**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mailto: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Nation Wide

#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IBERTY UNIVERSITY & MIT**  
(Meridian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세계 최초 카드 프로세싱 · Fintech · IT 창업 전문대학**

**①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과정 (Fintech & IT Training)**

- 전문 과정 수강료: \$5,000
- 카드 단말기·POS·온라인 결제 교육
- 교育 후 공인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자격 취득
- 실습 과정 + 현장 배치 지원
- 안정적 수입

**② 소액 창업자 & 투자자반**

- 카드 프로세싱 회사 운영 기회 제공
- 창업 투자자금 약 \$50,000부터 가능
- 본사 지원으로 독립 지점 개설 가능
-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기회
- 결제 시스템 + 마케팅·운영·고객 관리 교육 제공

**③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 글로벌 투자 이민 건설팀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 가능
-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 가능**

info@meridianwish.com www.meridianwish.com www.worldpay.com  
입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트 린

기타 지역

구인

중식쉐프 &amp; 헬퍼

알리스카, 취업경험자 유망분  
숙식제공(888)337-098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자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9월  
햇산삼  
세일미국의 산삼  
진중산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기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 20년된 한식점 일식당 급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운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멜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별도로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멜휘노 고메즈 씨.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나  
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중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 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  
\$1  
SOLD  
• 1BOX

묵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 \$12/lb 대주는 \$15/lb 대주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할라스카 추가요금

\* 210번 Freeway 이용하면 제일 편리함  
(State st.에서 내려서 북쪽으로 2분거리)

농장방문시 전화에 약 편수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독점** Dumfries 타운홈

2005년 새단지, 2 Car Garage, 방3, 화3½,  
Bay Window 2개, 편리한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집, 새 페인트, 잘 관리된 집,  
업데이트한 주방용구

**\$469,900**



**Contract**



**독점** Springfield 타운홈

방3, 화3½, 1 Car Garage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페인트, 새 Deck,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최근 에어컨, 히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710,0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 3½,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399,900**



**Contract**



**독점** Manassas 타운홈

방4, 화 3½, 엔드 유닛 타운 하우스, 업데이트 한  
부엌과 회장실들, 3층 모두 나무마루,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새 주방 용구들, 새 HVAC, Granite  
Countertop, 새 페인팅, 새 브라인드, 넓은 Deck와 Fence

**\$445,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